

광 고

원양산업

제 1153 호
(2023년 1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한국원양산업협회 윤명길 회장 2023년도 신년사 / 5
-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 개최 / 6
- 수산계고교 합동 홍보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 7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22년 12월 보고 내용 / 8
- 요리 만들기 (동태찌개) / 14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2022년 MGO 싱가포르 bunker 평균 가격 전년비 77% 상승 / 15

■ 참치어업 동향

- 2022년 참치 산업 리뷰 / 17
- 방콕 가다랑어 가격 1,700 달러 / 19
- MSC,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전략 채택에 찬사 / 19

- 日 2016~2022년 횡감용 눈다랑어 수입 통계 / 20
- 日 첫 참치 경매, 4년만에 전년비 가격 상승 / 20
- 日 냉동 눈다랑어 일선매매가 톤당 1,150 엔 / 21
- 日 하고로모社, 필리핀 공급망 확대 도모 / 21
- 日, 초음파 AI 활용 냉동참치 신선도 평가 성공 / 22
- 이탈리아, 스페인 참치캔 수입량 증가 / 23
- EU 2022년 3분기 참치캔 수입 누계 4% 증가 / 23
- EU 단일 시장 30년, 참치 무역에 미친 영향 / 24
- 아일랜드, EU에 참치 쿼터 할당 요구 / 24
- 美 참치캔 3분기 누적 수입량 16% 증가 / 25
- 美 보니토캔 수입량 증가 / 25
- 美 참치 파우치 수입량 증가 / 26
- 英 Prince “참치 가격 상승세 이어질 전망” / 26
- EU, 참치 연승선 풍력 추진 테스트 / 27
- 필리핀, 캔가공업자 수입에 엄격한 규정 설정 / 28
- 몰타 참치 공장, R&D 및 확장 추진 / 28
- 대만 연구, 태평양 참다랑어 서식지 이동 파악 / 29
- 中-에콰도르 FTA서 참치 제외 / 29
- OPAGAC, 태평양·인도양서 새 FIP 2건 개시 계획 / 30
- 스리랑카 회사, 몰디브 참치 가공에 주목 / 30
- 오징어어업 동향
- 日, 2016~2022년 냉동 오징어 수입 통계 / 31

Contents

■ 명태어업 동향

- 러 수산청, 극동 지역 2023년 쿼터 승인 / 32
- 러시아, 투자쿼터 배분량 결정...의회 통과 / 32
- 러시아 12월 5일 극동 명태 어획 누계 180만톤 / 33
- 中 2022년 10월 명태 H&G 수입 51만톤 / 33
- 러시아 명태 H&G 가격 급락 / 34
- 러시아 부가가치 명태 생산량 35% 급증 예상 / 34
- RFC 설립자, 회사 지분 완전 매각 / 35
- 노레보, EU 지부 자본금 대폭 축소 / 35
- RFC 신조 선상가공 트롤선 완공 직전 / 36
- 美 위원회, 2023년 알래스카 명태 TAC 대폭 상향 권고 / 36
- 명태, 미국 시장에서 매출 증가 가능 / 37
- 알래스카 명태대구 어업, RFM 인증 재평가 진행 중 / 37
- 알래스카 명태 트롤선 타 어종 영향 논란 / 38
- 美 명태·민대구 어업, FISH 노동표준 인증 취득 / 38

■ 공치어업 동향

- 日 9월 시점 냉동 공치 재고 3,422톤 / 39
- 日, 2023년 러시아 EEZ 쿼터 감소 / 39

■ 각국 수산 동향

- COP15가 미래 수산산업 미칠 영향 / 40
- 美, 원양어선 인권침해 문제로 中 수산기업 제재 / 41
- 美 제재 받은 中 Pingtan, 나스닥 상장폐지 / 41
- 美, 뉴질랜드 수산물 수입 제재 / 42
- 더 많은 국가들이 항만국조치협정에 동의 / 42
- 美 12월 수산물 매출, 전년 대비 감소 / 43
- 美 11월 식물기반 냉동 대체수산물 소매 매출 감소 / 43

- 유가 하락했으나 근시일 내 가격 상승 우려 / 44
- EU, 카메룬에 '레드카드' 부여 / 44
- 노르웨이산 환살생선, 英 수출 급증 / 45
- FISH 표준, SSCI 인정 절차 신청 / 45
- 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도 경제 반등 빨라 / 46
- 中, 냉장·냉동식품 수입 시 코로나19 검사 폐지 / 46
- 2022년 글로벌 소비 트렌드 짚어보기 / 47
- 日 교쿠요, 유럽·미국에 신규 생산기지 설립 / 48
- 그린란드, 2023년 어업협정 체결 / 48
- 타이유니온, 2023년 1억 7,200만 달러 재투자 / 49
- 타이유니온,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 평가 1위 / 49
- 인도네시아, 中 대체 환살생선 가공허브로 부상 / 50
- 日, 2016~2022년 냉동 고등어 수입 통계 / 50

■ 쉬어가는 난 (시)

- 희망하는 기쁨 <홍수희> / 51

■ 국내 수산 정보

- 12월 오징어 국내 동향 / 52
- 12월 명태 국내 동향 / 54
- 조승환 해수부 장관, 새해 첫 해양수산 현장 방문 / 56
- 2023년도 해수부 예산 6조 4,333억원 확정 / 57
- 2022년 농수산물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경신 / 58
- 내년 선원 최저임금 5.27% 인상 / 58
- 설 차례상, 수산물 할인행사로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 59
- 공적자금 굴레벗은 수협, 새출발 다짐 / 59
- 과메기·김, 1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 / 60
- 해양경찰청장에 김종욱 제청 / 60



지난해 베풀어 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의
회사와 가정에 항상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元旦
한국원양산업협회
임직원일동

한국원양산업협회 윤명길 회장

2023년도 신년사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원양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한 모든 수산인들이 새해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조업을 이어 나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원양산업 종사자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원양산업은 유가 급등,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힘든 한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원양업계는 각종 현안들을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며 슬기롭게 헤쳐 나왔습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러시아 출어 등 조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원양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해기사 구인난입니다. 현재 해기사 연령은 50세 이상이 72%이고 중간 연령층인 30대는 1.5%에 불과합니다. 직업가치관 변화로 젊은 연령층의 어선 승선 기피현상이 지속되고 중간 연령층 공동화(空洞化)로 고급사관 해기전승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선원 수급 문제로 인한 출항 및 조업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회원사들의 중지를 모아 해양수산부와 원양산업노동조합과 협의해 해기사 수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은 국내에서 어획이 불가능하거나(참치, 명태 등) 부족한(오징어, 꽁치 등) 수산자원을 100% 해외 연안국 EEZ 및 공해수역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양식·내수면 제외)의 44%를 차지하는 식량산업입니다. 원양산업은 연근해어업과 비교해 어선 척수는 0.63%에 불과하지만 생산량은 79%에 달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원양산업은 국제수산기구, 연안국, NGO 등의 존재로 인해 국제해양질서와 신 규범에 빠르게 적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원양업계는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소비자 가치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와 글로벌 식량위기 속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조업국 간 완전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어장 유지가 힘든 상황입니다. 부디 원양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원양노조 등 각계의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윤명길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 개최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 동원산업 김재철 명예회장 참석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5일 오후 2시 서울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신년인사회는 연초에 해양수산 업계, 산하기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다짐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다.

3년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 힘),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 힘),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 김재철 동원산업 명예회장,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정태순 한국해운협회장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하여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 장관은 신년 인사말씀을 통해 2023년 해양수산부 비전인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을 달성을 위한 해수부의 중점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해양수산업계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했다.

수산계고교 합동 홍보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인쇄물·동영상 제작, 홍보에 활용

‘수산계고교 합동 홍보사업’ 최종보고회가 지난 1월 3일 우리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추진된 ‘수산계고교 등 수산후계인력 육성방안 연구용역’에서 수산계고교 신입생이 정원대비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관련 기관 및 업·단체에 홍보 추진 재원 확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를 비롯한 수산 관련 7개 기관 및 단체가 2억 3,000만원을 모았고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이 자금을 활용한 사업 용역을 수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 이종호 과장, 신상호 사무관, 한국수산경영인증양연합회 주영대 사무총장, 수협중앙회 유정상 팀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김근용 국장, 원양산업노동조합 김영수 본부장, 해양수산연수원 진호현 교수, 우리 협회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 소기동 부장 등이 참석했다.

용역 결과물은 인쇄물 3종과 동영상 6종이다. 인쇄물은 ‘수산인력 커리어패스’ 본책자·소책자·브로슈어로 수산 직업군 분류 및 성장경로 개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승선분야, 어업·양식 분야, 식품가공·냉동 및 유통 분야, 수산 관련 협회 및 단체, 해양수산 공공기관, 수산 교육 연구 분야, 성공 사례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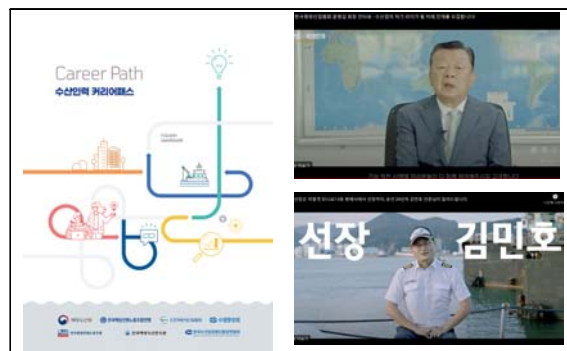
홍보 동영상은 △수산계 미래인재를 찾아서(수산계고교 탐방), △수산업의 미래인재(수산업 전문가들), △나는 수산인이다(수산 성공 사례자 인터뷰) 4종(동원산업 김민호 회장, 창남호 노형국 어로장, 따봉수산



영어조합법인 이희 대표, (주)해천마 노섬 대표)으로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 ‘어서오션TV’에 게시되어 있다.

제작된 자료는 전국 수산계고교 신입생 홍보, 중학교 진학교사 교육, 오션폴리텍 홍보, 자립준비청년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인쇄물과 동영상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수산계고교 인재모집 홍보영상 및 커리어패스 자료)에도 게시되어 있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12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세네갈 수산해양경제부 장관, 모리타니아와의 어업협정 관련 어업 관계자 면담

- 사냐 음바예(Sagna Mbaye) 수산해양경제부 장관은 생루이(Saint-Louis) 어업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음.
- 세네갈 해역의 어획량 부족으로 인해 생루이 어부들은 모리타니 해역으로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음. 어업 면허는 그들이 세네갈의 이웃 국가들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	818달러/MT	경유	'22.12.26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달러/톤)
가다랑어	3.4kg 상	1,600
	1.8~3.4kg	1,550
	1.5~1.8kg	1,400
황다랑어	3.4~10kg	1,650
	1.8~3.4kg	1,550
	1.5~1.8kg	1,400
눈다랑어	3.4~10kg	1,600
	1.8~3.4kg	1,550
	1.5~1.8kg	1,400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피지 총선 결과

- 지난 12월 14일 실시된 피지 총선은 총 55석의 의회 좌석 중 기존 여당이었던 FijiFirst 26석, 야당인 The People's Alliance 21석, The National Federation Party 5석, The Social Democratic Liberal Party 3석의 결과 가나와 야 3당이 연합하여 3석 차이로 2006년 쿠데타 이후 12년 간의 장기집권이 마감되고 정권이 교체되었음.
- 피지수상은 MR. RABUKA가 취임하였으며 거의 모든 관료들을 교체하고 있으며 현재 내각 구성은 완료되었음. 수산부 장관의 성명은 MR. KALAVETI VODO RAVU임.
- 현 수상은 정치적 보복이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여, 야간 의석수 차이가 너무 작아 의원 2명만 마음을 바꾸면 다시 정권이 뒤바뀔 수도 있는바 향후 6개월 정도는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달러/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00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1,120달러/MT	MGO	'23.1.9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

가. 어업 동향

- 모든 선박들 수리 완료, 본격적 오징어 시즌이 개시되었지만 예년에 비해 물량이 매우 적음.

나. 해수면 온도 급상승

- 뉴질랜드 남섬의 남서쪽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평균 13.5C를 가뿐히 넘긴 18C를 기록했음. 이는 이상기온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수산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해양동물 등에 어떠한 영향을 입히는지 연구할 계획임.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Z	1,249달러/MT	MGO	'23.1.4

라. 어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HOKI	2L	2,900	Sea Jho Co LTD.
	L	2,900	
	M	2,600	
	S	2,500	
LING	3L	3,450	
	2L	3,550	
	L	3,350	
	M	3,100	
	S	-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

가. 1월 10일 채낚기 어선 일제히 출항

- 정부에서 지난 12월 15일부터 어장 확보를 위한 출항을 허가했으나 채낚기협회(CAPA)는 수입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어구와 부품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과 배타적경제수역(EZZ)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외국선박들이 저지르는 각종 불법행위와 자국어선의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 등의 요구를 들어 출항을 미뤘었음.
- 1월 10일 대부분의 채낚기선이 동시에 출항기로 합의했음.

나. 어업이력제 강화

- 어업 부문에 추적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 26/22) 상업거래 모듈을 연방 수산 양식 정보 시스템에 통합함에 따라 추적이 가능하나 내부비용의 증가로 수출경쟁력에는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음.
- 상업모듈의 발효는 제품 및 어획물 구성, 하역, 가공 등의 감시 강화로 수출업체를 통한 외환결재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임.

다. 중국자본금의 확대

- 중국 자본 회사 ARBUMASA의 화평 882, 화평 828 트롤 선동 선박 진수에 이어 2023년까지 5척의 동급 선박 건조/인수를 마칠 계획임.
- 아르헨티나는 자국 조선사를 통해 선박을 건조하는 조건으로 어업권 및 허가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해외자본 유치/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의 각종 불법과 로비로 조업허가 및 할당량 조작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임.

라. 타국선 불법어업 감시/처벌 강화

- 2023년 오징어 시즌에 맞춰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활동하는 타국적선박에 대한 감시가 강화 / 처벌에 관한 법령을 이례적인 수준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
- 특히 중국 해적선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전쟁이라고 표현 / 2016년 도주하던 HUA LI8(600톤급 트롤)을 격침 시킨 예를 강조 / 특히 중국에 대한 경고로 보임.

마. 아르헨티나 수출 동향

- 2022년 아르헨티나 수산물 수출은 홍새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아르헨티나 어업수출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기타 일부 어종은 수출이 향상되었으나 전체 누적 하락률은 9,5%에 달함.

바. 2023년 아르헨티나 경제 동향

- 현재 아르헨티나는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3년은 수산업업을 포함 모든 기반 사업에 변동이 클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정부의 외환 유출 방지를 위한 강제적 환율정책과 수입/통관 제한 등으로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각종 어구와 장비/선박부품 등은 이미 품귀현상을 겪고 있음.

사.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EPSOL YPF	1,080달러/kl	MGO	'23.1.9

아. 어류가격 동향

- (홍어) 하반기 어획량이 2,700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 (메로) 2022년 수출량 2,110톤으로 상승, 국제 평균 가치는 26,863 달러이며 판매의 72%는 미국
- (홍새우) 2022년 전체 새우에 대한 상황은 수요가 21% 감소하고 평균 가격이 9.3% 하락하여 톤당 6,510달러에 머물렀음. 총 70,000톤 수출.
- (민대구) 2022년 수출량은 작년보다 16% 높은 50,000톤이며 평균 가격은 톤당 3,268 달러임.
- (오징어) 2022년 2월 기준 142톤이 평균 2,148 달러에 수출되었으나 3항차 이후 조업이 저조해지면서 가격이 상승, 최고 가격은 스페인이 톤당 3,121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최대 거래 물량은 전체 25%로 한국이 1위를 차지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기타
홍어	400/600g ~2kg	4,500~7,000	가공된 wing 기준
이빨고기	-	26,700	
홍새우	L1,L2	6,500~7,200	
민대구	150/250g ~600g	3,150~3,400	필렛 기준
오징어	-	2,100~3,250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관

가. 상업용 트롤 어선 대부분이 6개월째 조업 중단 중

- 선박 안전, 증가하는 연료비, 새로운 면허 요건 미충족 등이 결합되어 많은 상업용 트롤어선의 운항이 중단되어 있음. 당국이 격전을 벌여온 트롤선들의 불법 어구 사용도 중요한 이유이기도 함.



- 올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의 금어기가 종료된 후에도 현재 76척의 트롤선 중 7척 만이 수산양식개발부의 완전 허가를 받아 조업 중에 있음.
- 이러한 영향으로 테마 어항의 어류 하역량이 2022년 2월에 2,650.53톤을 기록하며 1월 5,383톤 대비 50% 감소했음. 2022년 5월 이후 참치어류 하역량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3,901~4,100톤의 하역량을 기록하며 1월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저서어 포획 허가를 받은 트롤어선 분야는 수년간 그물의 망고를 높이기 위해 불법적인 어구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바다에서 불법 어획물을 몰래 환적 거래하는 “Saiko 어업” 관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음.
- Mrs. Mavis Hawa Koomson 수산양식부 장관은 현재 시행 중인 어구 개조 및 교체 프로그램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치어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우리는 대부분의 트롤 어선들이 조업을 위해 모기장과 같이 승인되지 않은 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고 말했음.
- 그러한 이유로 수산양식부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면허증을 갱신한 트롤 어선에 대해 출항 전 어구와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음.
- 가나 산업트롤러 협회(GITA)에 따르면, 주요 외국 무역 통화화에 대한 가나 Cedi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대부분의 선박이 최적의 수준으로 운항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음.
- Ofori 박사는 올해 6월 현재 트롤선들이 각 항차 적당 50만 Cedi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는 트롤선들이 바다에서 조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음. 그는 “우리가 엄청난 연료비를 지불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선박들이 생산에 들어가기에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음.

- 가나해양청(GMA)의 Mr. Yaw Antwi 부국장은 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가나의 어획물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음. 그는 GMA가 케이프타운 협정이 발효되고, 유럽연합(EU)이 가나에 내린 기존 경고에 따라 자국의 어류 수출의 상당 부분이 국제시장에서 거부되어 어업이 좌초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음.
- GMA에서 조사 및 검사를 담당하는 부국장, Capt. William Tomson은 GMA가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라 선박에 대한 새로운 안전 규정 시행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나. 2023년부터 금어기 시즌 동안 이웃 국가에서도 조업 금지

- Mrs. Hawa Koomson 수산양식개발부 장관은 “2023년부터 금어기에는 인근 국가에서도 어선 조업을 할 수 없다”라고 발표했다.
- 장관은 수산부가 토고, 베냉, 코트디부아르의 어업 분야 관계자들과 금어기에 대해 논의했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Koomson 장관에 따르면, 그녀는 곧 금어기 문제에 대해 나이지리아 및 라이베리아와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음.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달러/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2,200	
	10kg 하	1,760	
가다랑어	3.4kg 상	1,400	
	1.8kg 상	1,350	
	1.5kg 상	1,200	
	1.5kg 하	1,05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양상급유	1,260달러/kl	MGO	'22.11.30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관

가. 인도네시아 우수한 흰다리 새우 모하 개발 박차

- 해양수산부 장관 Sakti Wahyu Trenggono씨는 Karangasem 우수모하개발생산센터 (BPIU2K)에서 Induk Udang Unggul Vaname Nusantara Sakti Dewata (Nusa Dewa)라는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흰다리새우 모하를 개발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밝힘.
-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한 우수한 흰다리새우 종은 성장이 빠르고, 질병에 강하며, 다른 나라의 모하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함.
- 개발된 우수한 새우 모하는 향후 5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주력이 될 것이고, 또한 모종생산부분에 종사하는 투자자들이 큰 성과를 올릴 것이라고 함.
- 지금까지 수입된 새우 모하의 수는 연간 약 160,000~200,000마리였음. 수입 모하의 가격은 1마리당 900,000루피아인 반면, 국내생산 모하의 가격은 1마리당 12,500루피아로 예상됨.

나. 인도네시아 새우 생산목표 상향 책정

- 2021년 미국이 인도네시아 새우 수출의 72%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국이었으며, 다음으로 일본과 유럽연합임. 2022년 09월 이후 새우 수출가격은 정상이 대비 45% 가까이 하락하고 있음.
- 한편 인도, 에콰도르, 베트남과 같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쟁국에서 생산되는 새우는 보다 효율적인 가격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국시장에 대형 새우 제품을 공급하는데 강점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에콰도르와 인도에 추월당하기 시작함.

- 세계 시장 약화 추세는 여전히 새우 질병 문제에 가려진 농민들을 강타했음. 몇 년 동안 조기 사망 증후군(EMS) 및 급성 간 췌장 괴사증(AHPND) 발병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았음.
- 새우 수출의 기여도는 총 수산 수출의 39%에 달하며, 2020~2024년 기간에 새우 수출액 42억 5천만 달러(250% 성장)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은 200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매년 수출 물량은 15%, 수출액은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2021년 새우수출량은 250,700톤으로 2020년 대비 성장 4.9%, 수출액은 23억 3천만 달러로 연평균 8.5%성장에 그쳤음.
- 세계 시장의 경쟁력 약화 문제는 새우 생산과 수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과제가 관건이며, 이 과제가 실현될 경우 2023년에는 새우 가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수출대상 국가 이외의 시장 다각화는 연간 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수요 증가에 대한 대처를 포함해 경쟁국과의 끊임없는 시장 확장 경쟁의 대처는 전략적 단계 중 일부분이므로 시장침투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대체시장 개척에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큰 사이즈 새우를 소비하는 것에서 작은 사이즈 새우를 소비하는 것으로 세계 시장의 관심이 바뀌는 것 또한 전략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현재 성장하고 있는 새우 시장은 60~80미/kg 사이즈임.
-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도 기회이며, 소비자들이 새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과 가공 제품 생산을 계속 증가하여야 함.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PNG 수산업 현대화 움직임

- PNG Western주의 Daru 지역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바다가재 사업은 점차적으로 MSC의 도입 등으로 정상적인 수산업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3년 2월 초에는 MSC 등록을 위한 현지답사가 이뤄질 예정임.
- 외국 시장의 요구 조건이 현대화되는 수산업을 지향하는바, PNG 수산청에서는 현대화된 GMP, HACCP등의 개념을 자국 내 회사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부터 활발한 투자를 해오고 있음.
- 또한 수산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침서 등이 만들어져 배포되는 등 낙후된 수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시도도 많이 이뤄지고 있음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	단가	규격	기타
생물 자연산 바다가재	31.37달러	0.6~1kg	
	41.35달러	1~1.5kg	
	52.76달러	1.5kg 이상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0.7475달러/리터	Diesel	'23.1.7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동태찌개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동태 1마리, 알 1컵, 곤이 1컵, 두부 1/3모, 대파 1대, 애호박 1/4개, 청양고추 2개, 홍고추 2개, 무 1/3개, 싹갓 1개, 멸치육수 500ml

<양념장>

다진마늘 2T, 간생강 1/3T, 새우젓 1.5T, 국간장 5T, 고춧가루 3T, 고추장 2T, 된장1T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무는 나박하게 썰고, 애호박과 두부는 편 썰고,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슷썬다.
- ③ 냄비에 무를 깔고 동태를 넣은 후 멸치육수를 넣어 끓인다.
- ④ 육수가 끓으면 양념장을 넣고 알과 곤이를 넣어 한소끔 끓인다.
- ⑤ 썰어놓은 채소와 두부를 넣고 끓인 후 싹갓을 올려 완성한다.



2022년 MGO 싱가포르 벙커 평균 가격 전년비 77% 상승

1월 평균가격 863 달러

2022년 국제유가는 전쟁 발발 다음달인 3월 배럴당 130달러 가까이 치솟았다. 세계 원유 수출 2위 국가인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들의 제재로 공급량이 줄면서 급등했으나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떨어지면서 최근 배럴당 80달러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2023년 1월 현재 국제유가는 글로벌 침체 우려와 중국의 재개방 기대감에 따른 수요 전망 개선이 혼재되며 2022년 12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월 11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8.68 달러, WTI 가격은 77.41 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82.67 달러를 기록했다.

〈MGO 가격 동향〉

2022년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평균 가격은 1,031.17 달러로 전년 평균 대비 77% 상승, 전전년 평균 대비 167% 상승했다.

2023년 1월 9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톤당 860 달러로 2022년 12월 9일(881.25 달러) 대비 2.4% 하락했다.

2023년 1월 평균(‘23.1.1~1.9) 가격은 862.65 달러로 전월 평균(‘22.12.1~31) 917.86 달러 대비 6% 하락했다. 전년 1월(1.1~31) 평균과 비교해서는 16%, 전전년 1월과 비교해서는 87% 상승했다.

〈유가 전망〉

향후 유가 전망은 상승이 우세하다.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완전 재개방을 근거로 올 3분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원유를 비롯한 상품 가격은 이달 말 음력설 연휴 이후 중국의 재개방에 달렸다고 골드만삭스는 설명했다.

골드만삭스의 제프 쿠리 상품리서치 글로벌 본부장은 이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중국) 재개방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꼽는다면 원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쿠리 본부장은 "그동안 미가동됐던 비행기부터 열차, 자동차까지 시동을 켜면 원유수요가 크게 터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국들이 팬데믹 제약을 풀고 완전히 재개방되면 3분기까지 북해 브렌트유는 11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쿠리 본부장은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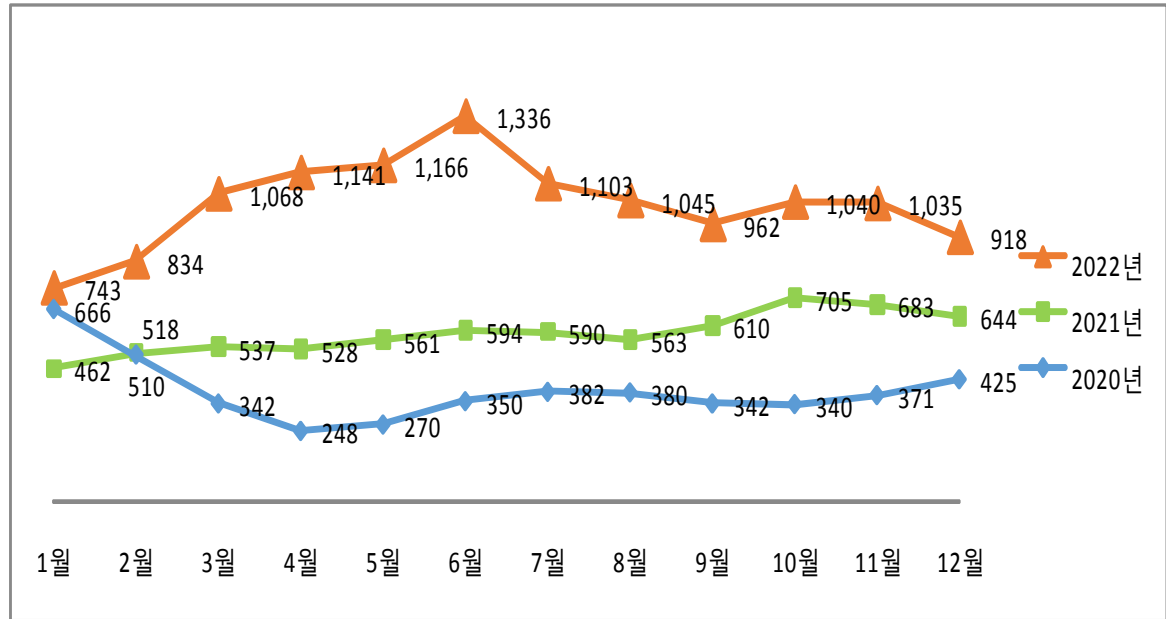
11일 국제유가는 3% 이상 상승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경제 재개방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서방국가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추가제재 소식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등 서방은 오는 2월 5일 발효를 목표로 러시아 정제 유류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발표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3%포인트 낮춘 1.7%로 예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작용한 2009년과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이후 지난 30년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의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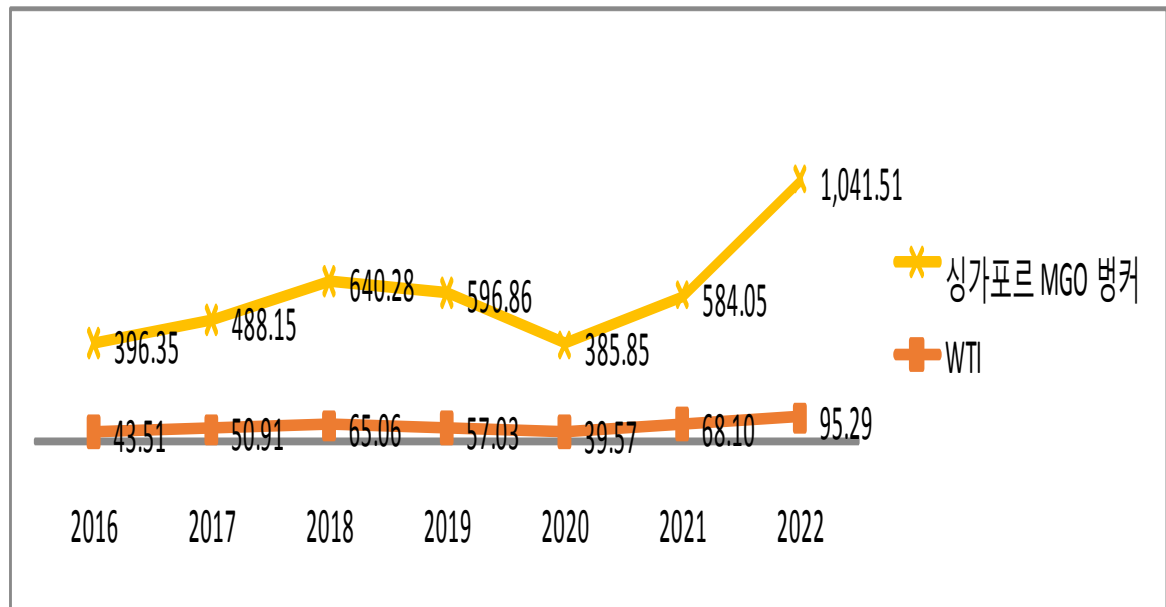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6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직전주에 비해 1896만1000 배럴 증가한 4억3960만7000 배럴로 집계됐다. 주간 증가량으로는 1982년 자료집계가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많은 증가량이다.



월 평균 싱가포르 벙커 가격



연 평균 MGO 벙커, Brent, WTI 가격





2022년 참치 산업 리뷰

전쟁, PNA MSC 인증, RFMO 어획전략 합의 등

〈참치 허브 가격 변동〉

올해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750 달러에서 시작해 4~5월에 1,900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그 후 올해 최저 수준인 1,450 달러로 급락했고 연말인 현재 1,750 달러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250 유로에서 시작해 1,450 유로에 마감했다. 1년 내내 2021년 가격 수준 이상을 유지했으며 9월에 1,525 유로로 가장 높았다. 인도양 어획량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다른 참치 허브로의 공급도 좋았다. 그러나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어획이 부진한 순간도 있었다.

만타 가다랑어 가격은 1월 톤당 1,650 달러에서 시작된 이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10월에 5년 내 최고치인 1,900 달러에 안착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전쟁은 전세계 참치 공급망에 영향을 미쳤다. 유가 상승으로 연료비가 급등해 참치 어업자들이 타격을 받았다. EU에서는 해바라기유 가격이 두 배로 급등해 3,000 달러에 이르렀다. 철강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캔에 사용되는 양철 가격이 상승했다.

연말이 되면서 철강과 해바라기유 가격이 정상화되었으나 참치 선사들은 여전히 높은 유가에 직면해 있다.

〈PNA 눈다랑어&FAD 어업 MSC 인증 실패〉

PNA 눈다랑어 및 FAD 어업에 대한 MSC 인증이 실패해 참치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반면 스페인 대형 냉동참치생산자연합(OPAGAC)을 포함, 중서부태평양의 타 11개 어업은 눈다랑어·FAD 어업 인증을 획득했다.

〈유로, 달러 패리티 충격〉

유로화는 올해 가치가 급락하며 올해 7월, 20년 만에 패리티(1유로=1달러)에 도달했다. 9월에는 사상 최저치인 0.9596 달러까지 떨어졌다. 유로화는 10월부터 강세를 보이며 11월에 패리티를 기록했고 현재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유로화 약세는 달러로 거래하고 유로로 판매하는 유로존 참치 업체들에게 부담이 됐다. 또한, 미국 달러 강세는 태국 바트화, 일본 엔화와 같은 다른 통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체적인 참치 산업에 영향을 줬다.

〈참치회사를 손가락질하는 NGO〉

환경 NGO들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미국의 주요 기업 2곳을 공격해 충격을 줬다. 지난 5월 영국 기반 NGO인 Shark Guardian은 Tri Marine사 MSC 인증 일부 어선(선망선 및 연승선)이 중서부태평양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채취하고 있다며 이를 비난했다.

지난 9월 그린피스는 미국 3대 참치캔 회사인 범블비와 범블비의 모회사인 FCF가 노동학대 및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연승선에서 어획된 날개다랑어를 조달하고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WWF, 건강한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을 주황색으로 표시〉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에서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이 건강한 상태라고 언급된 후 국제수산물 지속가능재단(ISSF)은 녹색으로 변경했지만 세계자연기금(WWF)은 주황색으로 평가했다.



〈어획전략을 포함한 RFMO의 진전〉

올해 IATTC 연례회의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거론된 문제는 동부태평양 연승어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었지만 합의되지 못했다. 전채에 대한 제안은 몇 차례의 조정 끝에 채택되었지만 옵서버 배치는 합의되지 못했다. 열대 참치에 대한 어획통제규칙에 대한 아이디어는 보류되었다(put aside).

IOTC 연례회의는 황다랑어 재건 계획에 대한 변경 없이 끝났다. 가다랑어 삭감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 2023년까지 가다랑어에 채택된 어획통제규칙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도양 내에서 조업하는 선망선사는 MSC 인증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ICCAT 회의에서 대서양 참다랑어 자원에 대한 관리절차가 채택되었다. 눈다랑어 TAC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TAC가 유지되었다.

WCPFC 연례회의에서는 가다랑어 관리 절차가 채택되었고 눈다랑어 어획전략에 대한 진전이 있었으며 상어 관리 제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

〈미국, 태평양 도서국 지원 강화〉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친중국 성향의 키리바시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탈퇴를 결정했다.

지난 5월 중국 대표단은 태평양 도서국 10개국과 포괄적 협정을 맺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들을 방문했지만 실패했다.

반면, 지난 9월 미국은 미국-태평양 파트너십 선언에 따라 태평양 도서국 14개국과 협정을 맺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23일자





방콕 가다랑어 가격 1,700 달러

2월 이후 가격 향방 나타날 전망

2022년 12월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높은 선단 운영 비용 및 일부 수역의 어획량 감소로 인해 톤당 1,700 달러까지 상승했다.

한 미국 중계업자는 “12~1월 방콕 가격은 다수의 예상과 달리 톤당 1,600 달러대로 하락하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서는 톤당 1,700 달러를 견고히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해당 중계업자는 유럽 시장,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황다랑어와 가다랑어 무역이 둔화되었다며, 2월 전까지 구체적 향방이 드러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들은 2월에 아시아산 면세 참치 로인이 전부 양륙되고, 여름 황다랑어 판매 전망이 나온 후에 수요를 가늠할 예정이다.

면세 로인 도착이 임박한 시점에서, 스페인 가다랑어 최신 가격은 톤당 1,700~1,750 유로로 전해졌다.

에콰도르 만타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800 달러로 소폭 하락했다.

만타 가다랑어 가격은 수개월 간 톤당 1,900 달러에 근접했으나, 금어기(1월 19일 종료) 등으로 인해 선단의 27%만이 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톤당 1,800 달러까지 하락했다.

다른 어업 회사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양의 어선들은 11월 중순부터 쿼터 문제로 조업을 중단했다가 1월 초에 어업이 재개되어 적은 수량이지만 어획이 있는 상태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은 현재 톤당 1,450 유로이다.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의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440 유로인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1월 10일자

MSC,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전략 채택에 찬사

MSC 인증에 긍정적 영향 예상되지만 완전한 보장은 없어

해양관리협회의(MSC)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가다랑어 관리절차(MP) 채택에 찬사를 보내며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참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MSC 최고 과학·표준 담당관인 Rohan Currey는 “대서양 참다랑어 어획전략에 대한 합의 직후 WCPFC의 이러한 약속으로 우리는 다자간 어업 관리에서 고무적인 ‘바다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MSC는 일단 해당 합의가 확정·발표되면 중서부

태평양 33개 참치 어업에 대한 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인 적합성평가기관(CAB)이 MSC 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MSC 인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CAB에서 대부분의 인증이 승인될 것이라고 예상되나 여전히 완전한 보장은 없음을 의미한다.

PNA 어업은 2023년 4월에 3번째 재인증을 앞두고 있다. 이번 재인증은 가다랑어 관리절차 채택의 영향을 보여줄 것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22일자



日 2016~2022년 횡감용 눈다랑어 수입 통계

日 2022년 10월 말 눈다랑어 수입량 15만 987톤

횡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2022년 1~10월 말 수입량은 3만 8,974톤으로 전년 동기 3만 6,506톤 대비 7% 증가했다.

반면 단가는 상승했다. 엔화 약세, 연료비 급등, 해

외시장 수요 증가 등이 겹쳐 평균단가는 kg당 1,014엔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평균단가인 746 엔 대비 36%나 상승했다. 2020년 평균 단가인 588 엔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극심하다.

부문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0월 말
선어	19,757	15,333	13,556	11,732	8,527	7,199	4,471
냉동	202,804	194,363	186,121	181,449	183,110	177,192	146,516
합계(톤)	222,561	209,696	199,677	193,181	191,637	184,391	150,987
단가 (인나산 선어)	1,050엔	1,178엔	1,073엔	1,053엔	948엔	949엔	1,222엔
단가 (대만산 냉동)	741엔	898엔	824엔	757엔	599엔	785엔	1,023엔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1월 1일자

日 첫 참치 경매, 4년만에 전년대비 가격 상승 3,604만 엔 낙찰

일본 전국 소비시장이 지난 1월 5일 2023년 첫 장을 열었다. 도쿄 도요스시장의 2023년 첫 경매에서는 212kg의 참다랑어가 kg당 17만 엔(전년 8만 엔), 1마리 3,604만 엔(전년 1,688만 엔)에 낙찰되었다. 야마유키(やま幸)사(社)가 초밥 체인업체 Onodera 그룹과 합세해 낙찰에 성공했다.

일본에는 첫 경매의 참다랑어를 축하장세(ご祝儀相場)라는 고가에 사들이는 문화가 있다. 이전 최고

가격은 2019년의 kg당 120만 엔, 1마리 3억 330만 엔이었다. 그러나 다음해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3년 연속으로 낙찰가가 전년 대비 하락했다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이날 상장된 참다랑어 선어의 수는 전년 첫 경매 대비 77마리 감소한 230마리(총 12.3톤), 냉동은 38마리 감소한 946마리(58.2톤)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1월 6일자



日 냉동 눈다랑어 일선매매가 톤당 1,150 엔

연초 이후 가격 추이 주목

일본 냉동 눈다랑어 참치 가격 지표가 되는 인도양 대만선 일선매매(一船買い, 어선 한 척의 어획물을 개체당 무게 상관없이 사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사들이는 매입 방식) 가격은 12월 중순 시점 대형(40kg 이상) 기준 톤당 1,150 엔으로, 7월 이후 보합세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력 부족이 장기화된 가운데, 눈다랑어 일선매매가는 작년 12월~올해 4월 동안 kg당 1,100 엔 가량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 상승과 엔저 문제가 겹쳐 5월 이후 상승해 7월부터 현재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지 도매상에 따르면, 눈다랑어 대형 가격은 고가

추세이나, 일본선 가격은 하락이 시작됐다. 일본선은 어획 전날 가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외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 달 전에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가격에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연초 이후 가격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하락 여부는 현 시점에서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반선의 반입은 연말부터 내년 1월에 걸쳐 일정 수준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운반선의 주요 상품은 지중해산 양식 참다랑어이기 때문에, 눈다랑어의 수량은 불확실하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12월 21일자

日 하고로모社, 필리핀 공급망 확대 도모

주재사무소 설립...공급망 확대 통한 비용절감 목적

일본 주요 참치캔 제조기업 중 하나인 하고로모(はごろも)사(社)가 어류 및 기타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 파트너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필리핀 수도 마닐라와 광역권 지역)에 두 번째 주재사무소를 설립했다.

필리핀 마카티(Makati)시에 위치한 주재사무소는 1월 4일 주재원 1인과 함께 업무를 개시할 예정으로, 현지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체제 강화와 원료·제품 관련 정보수집이 이들의 목표이다.

하고로모 측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수익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마닐라 주재사무소 개설을 통해 방콕 주재사무소 및 관련 기업인 인도네시아의

Aneka Tuna사와 연계해 강력한 공급체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고로모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필리핀으로부터 대량의 참치 로인을 수입해 일본에서 참치캔을 생산하고 있다. 하고로모의 필리핀 공급망 확장 결정은 원어 대신 로인 매입 비중을 늘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고로모는 참치 포장용 캔 및 기름 비용 상승으로 인해 2022년 9월기준 순이익이 전년도 동기 대비 95%나 감소한 바 있다.

* 기사 출처: 일본경제신문, 2022년 12월 31일자, 미나토신문, 2022년 12월 17일자



日, 초음파 AI 활용 냉동참치 신선도 평가 성공

냉동 참치 손상 없이 신선도 평가 가능

일본 IT 대기업 후지쓰(富士通)와 도카이대학(東海大学) 해양학부 수산학 고토 케이이치(後藤慶一) 교수의 공동연구그룹은 초음파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초음파 AI'를 활용해 냉동 참치의 신선도를 냉동 상태 그대로 손상 없이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12월 21일 발표했다.

냉동 참치의 품질 판별에는 참치 꼬리를 절단하여 그 단면을 통해 지방 상태, 색깔, 신선도 등을 판별하는 '꼬리 절단'을 비롯한 파괴 검사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꼬리 절단 선별 방식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평가의 범위가 꼬리 주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품'으로 판정받은 참치를 구입했다가 품질 이상이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 검사가 사용되고 있으나, 냉동 참치 등의 냉동 제품은 음파 손실이 커 일반적인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검사가 어려웠다. 이에 이번 공동연구에서는 손실이 적은 저주파수 초음파를 이용해 참치를 검사하고 그 파형을 기계학습으로 해석해 냉동 참치 신선도 판정을 실현했다.

연구에서는 우선 검사에 적합한 초음파 주파수를 조사했고 그 결과 500kHz 정도의 저주파수가 최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으로 정상 검체와 불량 검체에서 각각 취득한 초음파 파형을 비교한 결과, 불량 검체에서 취득한 파형은 중골로부터의 반사가 큰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 결과를 이용해 신선도 판별을 시도했다. 다만 육안으로 파형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에 후지쓰의 초음파 AI 기술을 이

용해 신선도 불량 여부를 판별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상 및 신선도 불량 참치의 검체 총 10마리에서 취득한 222개의 초음파 파형 중 중골로부터 반사파를 추출해 AI 기계학습을 실시했다. 그리고 위의 검체와 더불어 정상 검체와 불량 검체 총 6개에서 취득한 126개의 초음파 파형을 이용해 신선도, 불량도 점수를 산출하고 정상과 불량을 구별할 수 있는지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해당 학습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수치인 0.7을 넘어선 0.791의 값을 획득했다. 이는 약 70~80% 확률로 올바르게 판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꼬리 절단식 판별법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4월 1일 시작된 해당 공동연구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기술을 통해 수산상사가 어업자로부터 참치를 구입할 경우, 휴대용 단말기 형식의 기기를 여러 곳에 갖다 대면 전체의 신선도를 쉽게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어항 등에서 실시되는 컨베이어 벨트 검사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냉동 참치 신선도의 자동 일괄 검사가 가능해진다.

양측은 향후 참치의 검체 수를 늘려 초음파 AI 기술의 정밀도 향상을 도모하고, 신선도 외에 혈전이나 종양 등의 이상에 대한 감지도 연구하며, 수산 가공공장 등의 현장 실증실험도 진행할 계획이다.

* 기사 출처: ZDNet Japan, 2022년 12월 21일자



이탈리아, 스페인 참치캔 수입량 증가

프랑스, 네덜란드는 감소

EU의 2022년 3분기 누적 참치캔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총 42만 1,697톤이다.

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양의 참치캔을 수입한 이탈리아의 3분기 누적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8만 2,814톤이다. CFR 기준 톤당 평균 수입 가격은 5,001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818 유로 상승했다.

프랑스는 지난 5년간 EU 참치캔 수입 1위 국가였으나 2022년 초부터 참치캔 수요가 감소했다. 2022년 3분기 누적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7,214톤 감소했다.

EU에서 유통 허브 역할을 하는 네덜란드의 수입량은

36% 감소한 4만 1,924톤이다. 독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6만 6,174톤이며 수입량 중 일부는 동부에 위치한 타 EU 국가로 재유통되었다.

스페인 수입량은 51% 증가한 4만 8,936톤을 기록했다. 톤당 평균 수입가격은 4,102유로로 다른 상위 EU 수입국가에 비해 훨씬 낮았다.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 수입량은 각각 9,336톤, 7,687톤으로 EU 상위 수입국에 비해 적지만 전년 동기 대비 69%, 44% 증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1월 10일자

EU 2022년 3분기 참치캔 수입 누계 4% 증가

EU 내부 수입 12% 증가, 전체 수입 증가 주도

EU의 2022년 1~3분기 참치캔 수입량 누계는 4% 증가했다.

EU의 2022년 1~3분기 참치캔 수입량은 총 42만 1,697톤으로, 2019년의 수입량을 넘어섰다. EU 외부로부터 수입한 물량은 23만 883톤으로 3% 감소했고, 이 중 에콰도르산의 비중은 약 30%였다.

필리핀산 수입량은 2022년 상반기 동안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 결과 3분기 누계 24%나 감소했다.

파푸아뉴기니(PNG)산 수입량 또한 마찬가지로 15% 감소한 2만 791톤을 기록했다. 세이셸산의 총 수입액은 감소했으나 수입 물량 중 황다랑어의 비중이 상당했기 때문에 톤당 평균 수출 가격은

5,407 유로를 기록했다.

EU 회원국을 통한 수입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총 19만 9,468톤을 기록했다. 특히 네덜란드산의 3분기 수입량은 2분기 수입량 대비 1만 3,113톤 증가해 허브로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되었다. 독일산 1~3분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2만 988톤이나, 톤당 수입 가격은 가장 낮은 4,638톤이었다.

참치 생산국인 스페인산과 이탈리아산 수입량은 각각 14%, 11% 증가했다. 톤당 수입가격은 각각 5,906 유로, 6,772 유로로 모두 12% 상승했다. 포르투갈산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1월 9일자



EU 단일 시장 30년, 참치 무역에 미친 영향 공급 주도국 태국, 코트디부아르에서 에콰도르로 이동

2023년은 1992년 초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1993년에 EU가 결성된 지 30년 되는 해이다.

1993년 12개 유럽 국가가 합쳐지며 단일 시장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국가들(ACP 국가)에게는 특혜 관세가 부여되었다.

1993년 EEC(유럽경제공동체)는 당시 개발 중이었던 참치 가공 국가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페루와 '안데스공동체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국내 선단이나 EU 선망선에서 어획된 참치로 구성된 참치캔을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었다.

EU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안데스 협정, ACP 국가에 대한 특혜 관세는 태국 생산자들에게 타격을 줬다. 태국 참치캔 수출량은 1992년 6만 2,381톤에서 2021년 1만 424톤으로 감소했다.

반면, 에콰도르의 수출량은 1992년 1만 6,064톤에

서 7만 8,542톤으로 증가했다.

이전 프랑스 식민지였던 코트디부아르의 수출량은 1992년 5만 2,443톤에서 1만 4,127톤으로 급감했다.

태국 참치캔에 대한 24% 수입관세는 스페인의 강력한 로비 끝에 유지되었다. 당시 스페인은 규모는 크지만 경쟁력이 없었던 참치캔 산업에서 일자리와 고용 보호를 원했다. 스페인은 1993년에 EU 시장에 진입했지만 경쟁국에 비해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 2021년 스페인의 참치캔 EU 수출량은 12만 7,800톤 수입금액 6억 4,794 유로에 달한다.

EU가 도입한 자속로인에 대한 낮은 관세가 참치 손질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스페인 참치캔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1월 4일자

아일랜드, EU에 참치 쿼터 할당 요구 대서양 참다랑어 어획 쿼터 원해...수용 가능성 낮아

Charlie McConalogue 아일랜드 농림식품해양부 장관이 아일랜드의 참다랑어 어획 쿼터 할당을 위해 EU 이사회에서 토론회를 제안했다.

EU가 1990년대에 처음 쿼터를 배정받은 이후 아일랜드는 실적이 없어 쿼터를 받지 못했다.

McConalogue 장관은 영국이 브렉시트 무역협정에 따라 EU로부터 참치 쿼터를 받았음을 지적했고, 아일랜드에도 같은 쿼터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회원국들의 쿼터 관련 요구가 모두

거부되었기 때문에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으나, McConalogue 장관은 논의를 위해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대서양참다랑어는 아일랜드 수역에서 번성하고 있으며, 주로 일본·한국 선단이 어획한다. 일본은 ICCAT로부터 2022년 기준 참다랑어 쿼터 3,483톤을 배정받았고, 스페인은 6,147톤을 배정받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9일자



美 참치캔 3분기 누적 수입량 16% 증가

태국 포함 주요 원산지 참치캔 누적 수입 증가

올해 1~3분기 미국 참치캔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0만 4,833톤을 기록했다. 톤당 평균 수입가격은 1% 증가한 4,608 달러였다.

최대 수출국인 태국의 3분기까지 미국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5만 9,506톤이었다. 3분기만으로 봤을 때 올해 수출량은 약 2만 6,000톤이며 전년 3분기 수출량은 1만 2,300톤이었다.

2위 수출국 멕시코의 수출량은 25% 증가한 1만 3,388톤이었다. 톤당 평균 수출가격은 3,660 달러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다.

3위 베트남의 수출량은 19% 증가한 1만 278톤이었

다. 톤당 평균 수출가격은 6,272 달러로 한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베트남 가공업자는 주로 Wild Planet 브랜드용 대형 참치캔을 생산한다.

4위 인도네시아의 수출량은 9% 증가한 7,705톤이었다.

5위 에콰도르의 수출량은 327% 증가한 5,807톤이었다.

필리핀의 수출량은 26% 감소한 1,281톤이었다.

2020년 동기와 비교하면 48% 감소했다.

한국은 10위 수출국으로 515톤을 수출했다. 톤당 평균 수출가격은 6,376 달러로 모든 공급국 중 가장 높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15일

美 보니토캔 수입량 증가

5년 내 최고치

미국 식품서비스업에서 참치유사종인 보니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다랑어 참치캔 대신 보니토캔으로 일부 전환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보니토캔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 증가한 1만 2,974톤이다. 이는 2018년 수입량보다 약간 많았으며 5년 내 최고 수준이다. 평균 수입가격은 톤당 2,819 달러로 5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캔 용량은 1,705g으로 주로 식품서비스 부문에서 사용된다.

미국의 가다랑어캔 수입가격은 보니토캔보다 톤당 1,650~1,800 달러 비싸다. 보니토캔은 Chunk Light 참치캔(가다랑어, 황다랑어 참치캔)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가격이 낮아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 보

니토캔 생산에는 점다랑어, 물치다래와 같이 가치가 낮은 어종이 사용되고 있어 주요 상업종보다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허들이 낮다.

수출 1위 중국의 3분기 누적 수출량은 2021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4,758톤이지만 2020과 비교하면 558톤 적다. 평균 수출가격은 톤당 2,403 달러로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낮았다.

2위인 베트남의 수출량은 과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4,328톤을 기록했다.

3위인 태국은 2020년부터 수출을 늘리기 시작해 올해 수출량 2,529톤을 기록했다. 평균 수출가격은 중국보다 964 달러 더 높은 3,367 달러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21일자



美 참치 파우치 수입량 증가

3분기 누적 기준 8% 증가

미국의 올해 3분기 누적 참치 파우치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8% 증가한 3만 7,630톤으로 5년 내 최고 수준이다. FOB 기준 평균 수입가격은 5,655 달러로 7% 상승했다.

연도별로 보면 참치캔이 비축되고 카페와 식당이 문을 닫았던 2020년에 수입량이 감소했고 2021년에 회복한 이후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에콰도르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1만 3,133톤의 참치 파우치를 수출하며 태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3분기는 4,200톤이다. 에콰도르 수출 참치 파우치의 일정 부분은 스타키스트를 위한 것이다. 톤당 수출가격은 6,071 달러로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았다.

2위인 태국의 미국 수출은 계속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만 2,620톤을 기록했다. 평균 수출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5,462 달러였다. 태국은 소매 파우치뿐만 아니라 가격이 낮은 식품서비스 부문 파우치도 수출하고 있다.

3위인 세네갈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8,727톤이었다. 동원그룹 소유 세네갈 S.C.A.SA 참치캔 가공공장은 미국 스타키스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세네갈의 수출량은 5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4위인 필리핀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82% 급락하며 605톤에 그쳤다. 평균 수출가격은 4,527 달러로 베트남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5위인 베트남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1,345톤이며, 평균 수출가격은 2,855 달러로 가장 낮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20일

英 Prince “참치 가격 상승세 이어질 전망”

모리셔스 공장에 1,200만 유로 투자 계획

일본 미쓰비시그룹 산하의 캔 공급업체 Prince 그룹의 Neil Bohannon 수산물홍보부장은 참치 고가 추세가 근미래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Bohannon 부장은 2022년 참치 평균가격 추세가 2021년이나 2020년에 비해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치 원어 가격이 상승했으며, 참치 어획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 감소, 유가 급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방콕행 가다랑어 가격은 최근 톤당 1,700~1,750 달러까지 상승했다. Bohannon 부장은 참치 가격이

이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어획량 부족, 인도양 선단이 11월에 연간 쿼터를 소진하고 조업을 종료하는 등의 이유로 공급이 부족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또한 해외 운송비가 10월 이후 감소했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Bohannon 부장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참치 원어가 2023년까지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될 품목 중 하나가 되리라 예상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2월 16일자



EU, 참치 연승선 풍력 추진 테스트

두 자릿수 비율의 연료 저감 효과 입증

최근 EU 해양수산총국(DG Mare)은 스페인 엔지니어링 스타트업 bound4blue가 선박 성능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노르웨이 협력업체 Kyma, 참치·황새치 조업 연승선 71척을 대표하는 스페인 조직 ORPAGU와 풍력추진 선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미터 크기의 풍력 추진 설비 eSAIL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승선 'Balueiro Segundo호'에 성공적으로 설치했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해양수산기금(EMFF)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eSAIL은 선박 갑판에 설치되는 원기둥 형태의 구조물로, 바람을 빨아들여 공기 흐름을 구조물에 다시 달라붙게 해 낮은 항력으로 엄청난 양의 양력을 생성한다.

다. bound4blue에 따르면 이 eSAIL은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와 기계적 복잡성(즉, 관성부하(inertial loads), 진동(vibrations), 지속적인 움직임(constant movement) 없음)으로 기존 돛보다 6~7배 더 많은 양력을 생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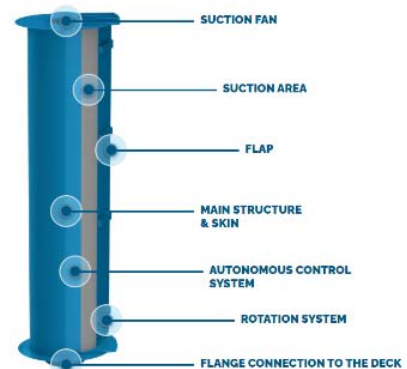
eSAIL은 경량, 소형 기술이고 유지비용이 낮으며 기존 선박에도 설치할 수 있다. 선망선에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테스트를 통해 eSAIL이 두 자릿수 비율의 연료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프로젝트 완료 직후 bound4blue는 유럽 선주들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eSAIL COMPONENTS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1월 4일자



필리핀, 캔가공업자 수입에 엄격한 규정 설정

호텔·식당 구매자 수입에 대한 요건도 강화

필리핀 농업부(DA)는 위생·식물위생 수입허가서 (Sanitary and Physio Sanitary Import Clearance, SPSIC) 발급을 중단하고 참치 수입업자에 대한 추가 요건을 도입했다. 새로운 규칙은 필리핀 통조림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업부는 참치캔 가공을 위한 참치 수입은 “식품안전 표준(Food Safety Standard)을 준수하는 필리핀 식약청에서 발급한 영업 허가과 검증 가능한 생산 기록 시스템을 통해 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수입업자 및 가공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집단 구매자는 수입업자의 이름, 수입 어종 및 수량, 해당 운송

일을 포함하는 등록 시스템이 제공되는 경우 참치를 수입할 수 있다. 이번 명령은 즉시 시행된다.

필리핀 수산청(BFAR)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보장하고 어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어 산업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수산·양식 위원회 위원장은 소규모 수산 사업체에서 가격 상승이 유발될 것이며 소비자들이 더 이상 고가의 신선한 어류를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16일자

몰타 참치 공장, R&D 및 확장 추진

연간 약 2만톤 생산·수출

지난 10월 가동이 시작된 몰타의 참치 가공공장 Aquaculture Resources가 이미 R&D 프로젝트 및 확장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몰타의 참치 양식업체로부터 원어를 공급받고 있으며, 부산물을 애완동물 사료로 활용한다.

해당 기업은 공장의 현재 운영 상태를 시험 단계로 간주하고 있으며, 향후 제약 또는 화장품 분야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공장의 현 운영 및 그 영향을 연구할 양성 센터에 투자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또한 강의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블루이코노미 및 양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몰타 대학교 협의 중이다.

해당 공장은 연간 약 2만톤의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2월 28일자



대만 연구, 태평양 참다랑어 서식지 이동 파악

대만~일본 동부 약 3,000km 이동

대만수산연구기관(FRI)은 스탠포드대학과 협력하여 Pop-up Satellite Archival Tag(이하 PSAT)라는 위성 태그를 사용해 산란 중인 태평양 참다랑어의 서식지 이동 경로를 조사했다. 대만 측은 이번 연구가 태평양 참다랑어의 서식지 이동 경로를 이해하고 도식화(mapping)한 최초의 연구라고 주장했다.

참치의 생태학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2021년 5월 대만 동부 수역에서 수행된 해당 연구의 중요 사안이었다. 총 3마리의 태평양 참다랑어(각각 180kg, 200kg,

300kg)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실험 대상에는 특정 기간이 지난 후 분리되는 PSTA 태그가 장착되었다. 해당 태그는 실험 대상의 움직임을 127일 13시간 동안 추적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실험 대상인 참다랑어는 대만에서 일본 동부 수역으로 3,000km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낮에 300~500m 수심에서 활동했고 밤에는 200m 정도의 얇은 수심에서 활동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12일자



中-에콰도르 FTA서 참치 제외

에콰도르 참치업계, 자국 산업 보호 위해 제외 요구

약 1년에 걸친 협상 끝에 에콰도르가 중국과 자유 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다만 참치는 FTA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Julio Jose Prado 에콰도르 생산부 장관에 따르면, 참치는 에콰도르 산업계로부터 FTA 대상에서 제

외되도록 요청받은 유일한 품목이다.

Prado 장관은 에콰도르 업계가 중국산 수산물, 특히 참치가 유입되어 자국 산업이 위협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1월 9일자



OPAGAC, 태평양·인도양서 새 FIP 2건 개시 계획

현재 동부태평양 FIP 1건 추진 중

현재 태평양에서 어업개선프로젝트(FIP)를 진행 중인 스페인 대형참치냉동선생산자연합(OPAGAC)이 현재 동부태평양에서 진행 중인 FIP 1건에 더해 2022년 말까지 2건의 FIP를 더 추진할 계획이다.

OPAGAC와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 스페인지는 2016년 세계 최대 규모의 FIP인 'OPAGAC Global Tuna FIP'의 개발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초기 예상보다 1년 이른 2020년 8월 21일에 MSC 인증 본 평가에 들어갔다. MSC는 2년간의 평가 끝에 지난 7월 인도양 가다랑어 어업에 대한 인증을 부

여했다.

연말까지 OPAGAC는 인도양 황다랑어, 눈다랑어에 대한 신규 FIP와 대서양 가다랑어, 눈다랑어에 대한 신규 FIP를 개시할 계획이다.

OPAGAC는 지난 8월 동부태평양에서 가다랑어 및 눈다랑어 MSC 인증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1건의 새 FIP를 개시했다. OPAGAC의 FIP 책임자 Isadora Moniz는 "2026년 말까지 해당 자원에 대한 MSC 표준 본 평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2월 16일자



스리랑카 회사, 몰디브 참치 가공에 주목

Slic Lanka사, 몰디브에 참치 공장 건설 계획

스리랑카 수산물 통조림 가공회사인 Slic Lanka사는 몰디브 Gadhdhoo섬에 참치 공장을 설계·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lic Lanka사는 참치캔을 주로 취급하지만 다른 수산물도 가공하고 있으며 EU와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공장 건설에는 500만 루피아(약 33만 달러)가 투입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 공장이 하루 5만개의 참치캔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톤급 냉동창고와 송풍 냉동장치도 설비될 예정이다.

몰디브에는 국영회사 MIFCO가 소유한 Funaddoo를 포함해 전역에 여러 참치어업회사와 가공공장들이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15일자



日, 2016~2022년 냉동 오징어 수입 통계

日 2022년 10월 말 냉동 오징어 수입량 9만 1,865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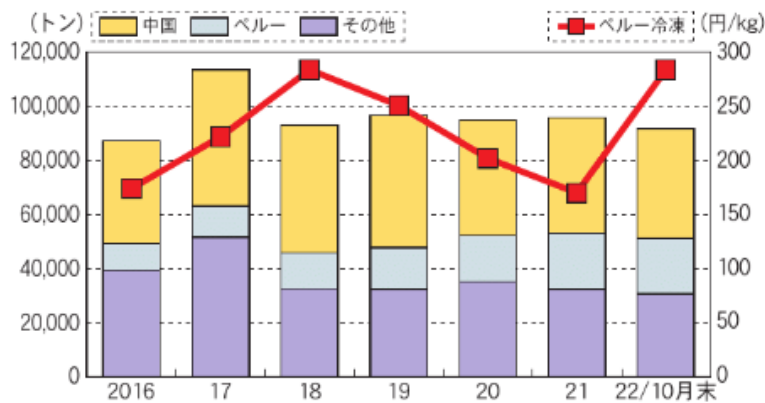
냉동 오징어의 2022년 1~10월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9만 1,900톤이다.

아메리카 대왕오징어의 경우, 페루산 수입량이 24% 증가, 칠레산이 31% 증가했다. 그러나 라니냐 현상 등

의 영향으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평균 단가는 페루산 69%, 칠레산 88%로 대폭 상승했다.

아르헨티나산 일렉소오징어의 수입 단가는 32%, 미국산 일렉소오징어 수입단가는 14% 상승했다.

부문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0월 말
중국	38,161	50,434	47,288	49,219	42,796	42,986	40,698
페루	9,758	11,593	13,394	15,357	17,114	20,738	20,566
기타	39,454	51,560	32,412	32,253	34,955	32,203	30,601
합계(톤)	87,373	113,587	93,094	96,829	94,865	95,927	91,865
단가(페루)	174엔	222엔	284엔	251엔	202엔	170엔	284엔



<일본 2016년~2022년 10월 말 냉동 오징어 무역 통계>

(좌: 수입량, 단위 톤 / 우: 수입 단가, 단위 kg당 엔)

(황색 막대 그래프: 중국산 수입량 / 하늘색: 페루산 수입량 / 보라색: 기타)

(적색 선: 페루산 냉동 오징어 수입단가, 엔/kg)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1월 4일자



러 수산청, 극동 지역 2023년 쿼터 승인

서베링해 명태 47만톤 등

러시아 수산청이 2022년 12월 5일 극동 지역 2023년 어업 쿼터를 설정했다.

수산청은 서베링해 수역 명태 총 TAC를 47만 3,892톤으로 설정했다. 북오호츠크해 조업구역 명태는 28만 9,600톤, 서캅차카 조업구역 명태는 29만 4,125톤이다.

캅차카-쿠릴 조업구역 명태 쿼터는 22만 7,728톤, 동사할린 조업구역 명태 쿼터는 10만 1,440톤이다.

카라긴스키 조업구역 명태 쿼터는 6만 613톤, 페트로파블로스크-코만도르스크 조업구역 명태 쿼터는 6만 9,620톤, 프리모리에 조업구역 명태 쿼터는 2만 6,682

톤이다.

남쿠릴 조업구역 명태 쿼터는 12만 3,630톤, 북쿠릴 조업구역 명태 쿼터는 8만 6,935톤으로 설정되었다.

태평양청어 쿼터의 경우, 북오호츠크해 조업구역은 26만 7,871톤, 카라긴스키 조업구역 3만 6,894톤, 서캅차카 조업구역 3만 2,238톤이 설정되었다.

대구 쿼터의 경우, 서베링해 조업구역은 7만 9,300톤, 카라긴스키 조업구역 1만 6,487톤, 페트로파블로스크-코만도르스크 조업구역 1만 3,478톤이 설정되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2월 12일자

러시아, 투자쿼터 배분량 결정...의회 통과

1, 2단계 합쳐 TAC의 약 44%과...2023년 발효

러시아 수산청은 2022년 12월 5일 투자쿼터 포함 2023년 극동 수역 목적별 TAC 배분을 완료했다.

투자쿼터는 어업회사가 어획 쿼터를 부여받는 대신 어선 건조 등의 투자 의무가 수반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법안은 게 어획량의 거의 전량을 경매로 배분하는 것을 규정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투자쿼터 제1단계에서는 대상 어종 TAC의 최대 20% 한도 내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어획 쿼터가 배분되며, 그 중 최대 15%가 어선 건조, 최대 5%가 육상 가공장 건설 기업에 배분되었다.

명태의 경우 추가 20%, 1단계 조정용 4% 등을 합쳐 TAC의 총 44% 이내에서 배분된다.

한편, 러시아 상원은 12월 23일자로 투자목적 어획 쿼터 제2단계를 개시하는 개정 법안을 채택했다. 법

안은 2023년 발효될 전망이다.

게 투자 쿼터 낙찰자는 1년 이내에 투자 프로젝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과거 실적에 근거해 어획 쿼터에 1.2의 계수를 곱하여 조정하는 안이 제안되고 있다.

극동 수역 명태, 청어는 제2단계에서 추가적으로 20%, 제1단계의 조정용으로 4%, 그리고 제1단계의 20%를 합쳐 44% 이내까지 투자 쿼터로서 배분한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제2단계에서는 고성능 어선 최대 30척, 게 어선 최대 35척, 수산가공공장 8개 시설 등을 건조·건설하게 된다. 제1단계를 포함하면 러시아 어선의 평균 선령은 35년에서 9년으로 낮아지고, 극동 어획량은 100만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12월 26일자,

훗카이도 기선련, 2022년 12월 13일자



러시아 12월 5일 극동 명태 어획 누계 180만톤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러시아 수산청에 따르면 러시아의 12월 5일 기준 어획량 누계는 459만톤이다. 극동 지역 어획량은 330만톤 이상으로, 그 중 명태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약 20만톤) 증가한 180만톤, 청어 어획량은 20%(약 6만 5,000톤) 증가한 42만 8,000톤이다.

바렌츠해 등 북부 수역 어획량은 49만 4,000톤, 아지프·흑해 수역은 4만톤, 불가강·카스피해 8만 1,000톤,

서부 수역은 5% 증가한 7만 4,000톤이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1~11월 극동 사할린(쿠릴 포함)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73만 4,000톤이다. 그 중 명태는 10%(약 3만 5,000톤) 증가한 38만 1,000톤이며, 청어는 7%(약 3,000톤) 증가한 5만 3,000톤이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12월 22일자

中 2022년 10월 명태 H&G 수입 51만톤 지난 10년간 최저 수준 이후 회복세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2022년 1~10월 러시아산 명태 H&G(머리·내장 제거) 수입량은 총 51만 3,000톤으로, 평년 수준의 수입량을 거의 회복했다.

2021년 중국의 명태 H&G 수입량은 지난 10년간 최저치인 38만 2,000톤이었다.

중국의 올해 10월까지의 수입량은 전년 총 수입량을 넘어섰다. 올해 1~10월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평균 수입액도 상승했다. 지난 10월 중국의 러시아산 명태 H&G 수입단가는 톤당 1,468 달러이다. 전년 10월 수입 단가는 톤당 1,258 달러였다.

한편, 중국의 2022년 냉동 명태 필렛·블록 수출량은 2021년과 비슷했다. 2022년 1~10월 동안 중국은

2021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6만 1,000톤의 필렛과 블록을 수출했다. 2020년 동기와 비교하면 2% 증가에 그쳤다.

2022년 1~10월 동안 중국 최대 수출시장인 독일행 수출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7만 4,500톤이며, 수출액은 33% 증가한 2억 5,500만 달러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산둥성이 랴오닝성을 제치고 최대 수출 지역이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Yantai, Shantou 등의 가공허브를 보유한 산둥성은 2022년 1~10월 동안 10만 1,000톤의 명태 필렛·블록을 수출했다. 반면 다롄이 위치한 랴오닝성의 수출량은 4만 9,000톤에 그쳤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2월 15일자



러시아 명태 H&G 가격 급락

유럽 더블·싱글 프로즌 필렛 시장 둔화 및 공급 증가 전망이 원인

러시아 H&G 명태 가격이 수 주간 빠르게 하락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쿼터가 16%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 명태 공급 가능량이 약 380만톤 증가할 것이며 구매자들은 PBO(뼈, 가시 제거) 필렛 가격이 현재의 기록적인 수준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아울러, 운임 하락 및 유로 약세로 유럽 필렛 시장 구매자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가공업자들이 선호하는 25cm+ 크기의 H&G 명태 CFR 기준 중국 가격은 2개월만에 톤당 약 300 달러 하락하며 현재 톤당 1,400 달러 수준이다. 10월 가격은 1,700 달러로 최소 1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 어업 회사 관계자(소식통 A)는 “강력한 공급 전망 외에도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EU의 임박한 경기 침체와 피시핑거(막대형 생선살을 튀김옷에 튀긴 것) 및 알래스카 명태로 만든 제품의 판매 감소이다”라고 말했다. A에 따르면 유럽 가공업자들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로부터 블록에 대한 신규 주문을 중단했다.

명태 등 중국산 흰살생선을 공급하는 회사 관계자(소식통 B)는 “수요가 둔화된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유럽 대형 가공업체 관계자(소식통 C)는 러시아 H&G 및 PBO 가격에 가해지는 압력과 공급 증가가 미국 필렛 블록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보호받는 국내시장의 존재로 인해 러시아보다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러시아 싱글 프로즌(PBO) 가격은 톤당 약 4,200~4,250 달러로 하락했다”며 “내년 A시즌에 4,000 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며 미국산과 러시아산 간 가격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산과 러시아산은 미국의 러시아 수산물 수입 금지, 영국의 35% 관세 부과로 가격 격차가 커졌다. 소식통 A는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러시아 명태 판매자(소식통 D)는 현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2월 20일자

러시아 부가가치 명태 생산량 35% 급증 예상

중국의 코로나19 규제로 인해 부가가치 생산 집중

러시아명태어업자협회(PCA)에 따르면 필렛, 민스, 연육(surimi) 등을 포함한 러시아 명태 부가가치 제품의 2022년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18만~19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PCA에 따르면 명태 필렛, 연육 가공 가능 어선은 지난 8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해 대형·중형 트롤선 기준 약 42척에 달한다.

PCA는 2021년 선상 냉동 명태 필렛, 민스, 연육 생산량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12만 9,000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극동 육상 가공 공장에서는 2만 6,000톤의 부가가치 명태 제품이 생산되었다.

올해 부가가치 명태 생산량 예상치인 19만톤 중 선상 냉동 명태 제품은 약 8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2월 21일자



RFC 설립자, 회사 지분 완전 매각

美 제재 영향

러시아 명태 대기업 RFC의 설립자 Gleb Frank가 본인의 회사 지분을 완전히 매각하고 소유권에서 손을 뗐다.

Frank는 지난 3월 SDN 명단에 등재된 후 RFC의 지분 70.09%, Russian Crab의 지분 70.1%를 매각하고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했다. 지난 21일, Frank는 남은 소유 지분 29.9%도 매각했다.

Frank가 매각한 지분은 RFC와 또 다른 Frank 소유의 기업이었던 Russian Crab의 최고 경영진 (Evgeny Orlov, Alexander Sapozhnikov, Anton

Chertkov, Savely Karpukhin, Stanislav Aksenov)이 지분 99.99%를 보유한 지주회사 Ost Invest Holding LLC를 통해 인수했다.

Frank는 미국 재무부의 특별제재대상(SDN)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대상자는 미국 내 사업 금지, 해당국 관할 자산 동결,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Frank는 러시아 국가 투자쿼터 프로그램 제2단계의 입안자로 간주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2월 28일자

노레보, EU 지부 자본금 대폭 축소

홍콩 지주회사로 자본 이전 중

영국 정부기관 Companies House에 게재된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 흰살생선 대기업 노레보(Norebo) 그룹의 유럽 지부가 자본금을 75% 축소했다.

지난 12월 19일 노레보 유럽 지부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에서 발행한 보통주(1 파운드) 1,760만 2,968주를 '취소 또는 소멸'시켜 자본금을 기존의 2,375만 파운드(약 2,720만 유로)에서 614만 7,032 파운드(약 750만 달러)

까지 1,760만 파운드(약 2,000만 유로) 이상 감축했다.

감축된 자본금은 홍콩에 본사를 둔 모기업 Norebo Overseas Holdings사로 다시 이전된다. Norebo Overseas Holdings사는 러시아 외부에 위치한 모든 노레보 판매회사의 지주회사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2월 22일자



RFC 신조 선상가공 트롤선 완공 직전

길이 108m, 너비 21m 규모

내년 초 인도 예정인 러시아 RFC의 신조 트롤선 Mekhanik Maslak호의 해상 시험이 핀란드에서 진행되고 있다.

길이 108m, 너비 21m 규모의 Mekhanik Maslak호는 RFC의 선단 개선 프로그램의 두 번째 선박이다.

프로젝트의 첫 어선인 ST-192 설계의 Vladimir Limanov호는 터키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인도되었다. 현재 10척의 선박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Admiralty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다.

극동 수역에서 명태, 청어 어획 목적으로 설계된 해당 프로그램의 어선들은 승선 가능인원 139명, 어획물 수용 가능한 냉동창 용적 5,000m³이며 갑판 어획물 처리장에서 완전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3, 4번째 선박인 Mekhanik Sizov호와 Kapitan Martynov호는 Admiralty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며 내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2년 12월 21일자

美 위원회, 2023년 알래스카 명태 TAC 대폭 상향 권고 동베링해 TAC 약 130만톤

북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NPFMC)는 미국 상무부에 2023년 알래스카 명태 TAC를 2022년 대비 16.7% 증가한 132만 1,000톤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NPFMC에 따르면 동베링해 명태 TAC 권고안은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한 130만톤, 알래스카 만 명태 TAC는 전년과 같은 1만 9,000톤이다.

보고슬로프(Bogoslof) 지역 TAC 또한 전년과 같은 250톤으로 권고되었다.

지난 12월 11일 알래스카 최대 도시인 힐튼 앵커리지에서 개최된 NPFMC는 자문위원회(AP)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2월 12일자



명태, 미국 시장에서 매출 증가 가능

미국 명태 산업 전문가들 예측

베링해 연근해 선박 보유 기업의 한 임원은 명태 가격이 2023년 초 톤당 5,000 달러를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적어도 상반기 동안 가격이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명태 부문의 다른 임원은 인플레이션이 최근 몇 달 동안 명태 가격에 충격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록적인 가격에서도 동일한 가치 제안을 제공하는 다른 어류는 없다”며 돈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식료품점의 냉동식품 진열대, 패스트푸드 체인 등의 영역에서의 명태 인기를 지적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이 예상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소매·식품서비스 유통 경로에서 명태의 인기는 2023년에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농무부(USDA)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더라도 2019년보다 2022년에 식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

또한 미국 농무부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명태를 계속 구매하고 있다. 이는 2023년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업계를 부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소식통은 “글로벌 시장이 미국과 러시아의 TAC 증가로 확대되는 명태 공급을 흡수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블록과 연육은 여전히 약간의 재고 부족을 겪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의 생산 증가가 명태 공급 또는 수요 역할을 크게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야생 알래스카 명태가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며 미국에서 연육에 대한 수요가 더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2월 14일자

알래스카 명태·대구 어업, RFM 인증 재평가 진행 중

추적가능성 및 수산물 조달 투명성 인증

알래스카 명태·대구 어업이 ‘책임있는 어업 관리(RFM)’ 인증에 대한 재평가 과정에 들어갔다.

공개 논평 기간은 2022년 12월 19일에 시작되었고, 2023년 1월 19일까지이다. 기간 이후에는 제3자 기관인 DNV가 재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RFM은 추적가능성 또는 책임있는 수산물 조달을 보장하는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어업 표준’과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 표준’ 2가지가 포함된다.

‘어업 표준’은 지속가능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인증하고 지속가능한 조달의 증거를 제공한다. ‘관리 연속성 표준’은 신청자의 추적가능성 절차가 표준을 준수하고 인증된 어장을 역추적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2월 14일자



알래스카 명태 트롤선 타 어종 영향 논란

NPFMC, 즉각적 조치는 거부...권고안 작성 예정

북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NPFMC)는 일부에서 연어, 게 등 타 어종의 개체수 감소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명태 트롤 어업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둘째 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개최된 NPFMC 회의에서, 원주민 대표와 게·연어 어업 부문 대표단은 베링해의 광대한 지역에 걸친 트롤 어업의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위원회 측은 2023년까지 결정을 연기했다.

명태는 중층 어종으로 분류되나, 베링해 트롤 어업자들은 소나(sonar)가 해저의 어군을 감지하면 수심이 깊은 곳까지 그물을 내린다. 일부 수산과학자는 베링해 게류 및 브리스톨만 연어 개체수 감소가 명태 트롤 어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감소는 베링해 상류에 위치한 유콘강 구역의 원주민 자급자족 어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알래스카 게·연어 자원 감소와 명태 어업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결정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명태 트롤 어업 중단을 요구하는 측은 해당 어업이 자원 관리의 보존 원칙에 따라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롤 어업의 중단은 최소 65개의 서부 알래스카 촌락 및 '지역개발 쿼터 프로그램(CDQ)'의 편당을 받는 알래스카 지역사회 주민 2만 8,000여 명에게 중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12월 회의에서, NPFMC는 12인으로 구성된 이들의 연어 혼획 위원회에 권고안 초안을 작성하여 2월 6일과 4월 3일에 개최될 두 차기 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6월 5일 위원회 투표를 통해 권고안이 나올 예정이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1월 3일자

美 명태·민대구 어업, FISH 노동표준 인증 취득

윤리적 고용·대우 보증하는 표준

미국 알래스카 명태·민대구(hake) 어업 회사인 Phoenix Processor Limited Partnership사(社)가 자사 어선인 M/V Excellence호와 M/V Phoenix호에 대한 FISH 윤리적 노동관행 표준 제3자 인증을 취득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FISH 표준은 윤리적으로 모집·고용되고, 정당한 대우와 급여를 받으며, 고충 해결 프로세스가 있는 선박의 선원들에 의해 어획된 수산물임을

구매자들에게 보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Phoenix Processor Limited Partnership사 이전에 FISH 인증을 취득한 선박의 선사로는 American Seafoods, Arctic Storm, Coastal Villages, Glacier Fish, Trident Seafoods 등이 있다. 현재까지 인증을 취득한 선상가공 어선은 모두 14척이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1월 3일자



日 9월 시점 냉동 공치 재고 3,422톤

10월 반입량 55톤

일본 농림수산업성 장관 통계부에 따르면, 일본 전국 주요 냉동저장고의 9월 말 시점 냉동 공치 재고는 3,422톤으로, 전년 9월 대비 40% 감소했다.

일본의 2022년 공치 어획량은 사상 최저치였던 2021년을 하회하는 수준이며, 9월 공치 입고량 또한 월

1,000톤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한편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0월 냉동 공치 반입량은 중국산, 대만산 및 지역을 통틀어 55톤(전년 대비 80% 감소)에 그쳤다.

연도	월말 재고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2	7,003	6,552	5,730	5,668	5,296	5,006
2021	8,749	11,398	11,028	10,236	9,559	7,804
2020	14,228	12,950	11,891	10,601	9,902	7,893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5,388	3,866	3,422	-	-	-
2021	6,977	9,193	5,759	5,577	7,302	6,986
2020	7,270	6,900	6,089	6,994	8,987	9,248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12월 21일자

日, 2023년 러시아 EEZ 쿼터 감소

공치 쿼터 3만 1,824톤...2만톤 이상 감소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러시아 EEZ 어획 쿼터는 총 5만톤으로, 전년 대비 2만 5,000톤 감소했다. 러시아의 2023년 일본 EEZ 어획 쿼터 또한 5만톤으로 감소했다.

양국은 공치와 태평양대구를 어획한다.

일본의 2022년 러시아 EEZ 공치 쿼터는 5만 6,424톤이었으나, 올해는 3만 1,824톤으로 감소했다. 이는 올해의 낮은 어획량을 감안한 것이라고

일본 수산청은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태평양대구 쿼터는 3,200톤으로 2배 증가했고, 살오징어 쿼터는 5,619톤으로 유지됐다.

양국은 또한 양국 어선 간 분쟁이 빈번한 일본 동부 이바라키현 태평양 연안 15마일 이내 수역에서 러시아 어선의 조업을 전면 금지하는 새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1월 6일자



COP15가 미래 수산산업 미칠 영향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와 육지 30% 보호 목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와 육지 30%를 보호하고, 민·관이 거액의 기금을 낸다는 내용의 생물다양성 협약이 타결됐다.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정해 관리한다는 일명 '30×30' 목표는 어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는 해양 생물은 미혹점상어(silky shark)와 청새리상어(blue shark)이다. 상어 2종은 참치연승선 조업 시 흔히 부수어획되며 선망선의 경우 빈도가 낮다. COP15 협정은 상어 부수어획에 대한 참치 지역수산물기구의 한층 더 강한 제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참석자들은 COP15의 결과가 자금과 보존노력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도달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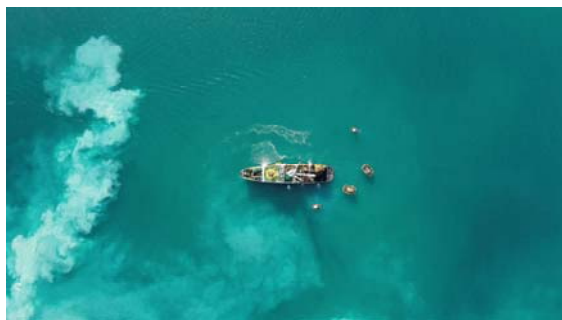
이번 프레임워크에서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자원 계획도 세우졌다. 2030년까지 전 세계는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정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COP15는 이러한 보조금이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위한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데 사용되기를 원한다. 현재 몇몇 국가의 선단은 신조 관련 보조금과 연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향후 종료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공공과 민간 재원을 통해 이러한 보존 노력을 위해 연 2,000억 달러(약 260조 8,000억 원)를 조달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중 선진국들이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약 26조 1,000

억 원)를, 2030년까지 매년 최소 300억 달러(약 39조 1,000억 원)를 내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중·저소득국가에 지원에 사용된다. 해양보호구역(MPA) 설정 시 입어로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태평양 도서국 등 연안국들의 MPA 설정이 용이해질 수 있다.

아울러, COP15에서는 대기업·다국적기업·금융기관에 그들의 기업 운영·공급·가치사슬·포트폴리오로 인한 생물다양성 위험·종속성·영향에 대한 모니터링·평가·투명한 공개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수입 수산물이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방식으로 공급된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적절한 추적가능성에 대한 선진국의 입법 활동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현재 이러한 법적 체계는 EU와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캐나다와 영국이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이 세계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인정받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21일자



美, 원양어선 인권침해 문제로 中 수산기업 제재

다롄오션·핑탄마린엔터프라이즈 등 대상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불법 조업 및 노동 착취를 이유로 중국 수산기업 다롄오션피싱(Dalian Ocean Fishing, 이하 DOF)사와 핑탄마린엔터프라이즈(Pingtang Marine Enterprise, 이하 PME)사를 제재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조치는 DOF 회장 겸 총책임자 Li Zhenyu와 PME 설립자·회장 겸 CEO 인 Xinrong Zhuo 및 Zhuo 가문 소유의 Fuzhou 사 등 다수 어업 관련 회사, 그리고 총 157척의 산하 선박이 대상이다. 이번 제재 조치를 통해 해당 기업 및 개인의 미국 자산이 동결되었고, 이들의 미국 사업이 금지되었으며, Zhenyu와 Zhuo는 미국 입국이 금지되었다.

PME는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으로, 미국 재무부가 나스닥 상장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의 일환으로 재무부는 미국 시민과 기업에 대해 2023년 3월 9일까지 PME 관련 모든 금융 계약

및 기타 계약을 종료하고 PME의 모든 부채 또는 지분을 타국인에게 처분하거나 양도하도록 명령했다.

PME는 최근 몇 년 동안 선단 규모를 약 3배로 증대시켰다. 재무부는 PME가 2021년에 중국 정부로부터 1,9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고, DOF 또한 연간 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무부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DOF 산하 한 선박의 선원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3개월 동안 한 번도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 1일 18시간 동안 일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염분이 제거된 갈색 바닷물로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 5인이 사망했고 3인의 시신을 바다에 버려졌다. 살아남은 선원들은 영양실조에 걸렸고 원래 약속한 급여의 일부만 받았다.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PME 선박들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에콰도르 등지에서 인권침해 및 IUU에 연루되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2월 8일자

美 제재 받은 中 Pingtan, 나스닥 상장폐지

Pingtang, 이의제기 예정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지난 12월 21일 중국 원양기업 핑탄마린엔터프라이즈(Pingtang Marine Enterprise, 이하 PME)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PME 성명에 따르면 나스닥 상장적격부는 회사 유가증권의 지속적인 성장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상장규칙 5101호에 따라 PME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는 12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PME는 12월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제기를 할 경우 최종 결론은 나스닥 청문회에서 결정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1월 4일자



美, 뉴질랜드 수산물 수입 제재 글로벌 수산업에 심각한 결과 초래 우려

미국 법원은 NGO 단체인 Sea Shepherd가 뉴질랜드의 특정 돌고래 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후 뉴질랜드산 어종 9종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

해당 금지 조치는 특정 지역의 특정 어류에만 적용될 수 있으나, Sea Sepherd가 미국 시장의 타국 어업에 대해 다른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의해 즉시 발효된 이 금지령은 도미(snapper), 타라키히(tarakihi), 두툽상어(spotted dogfish), 무명갈전갱이(trevally), 와레후(warehou), 새꼬리민태(hoki), 바라쿠타(barracouta), 승어(mullet), 성대(gurnard)에 적용된다.

Sea Shepherd는 멸종위기에 처한 마우이돌고래(Maui dolphin) 서식지 보호를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종은 이미 뉴질랜드 법으로 보호되

고, 영향을 주는 어업에 규제가 시행 중이나, Sea Shepherd는 이 조치가 미국 기준과 동등한 수준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해양대기청(NOAA)은 뉴질랜드의 어업 규제가 미국 기준과 동등하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해당 과정은 절차가 길고 요식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점까지 금지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뉴질랜드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에 금지된 어종의 미국 수출 비중이 극히 적기 때문에 금지령 자체의 타격은 미미한 수준이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죄추정'이나 다름없으며, 앞으로 모든 수산물 수출에 추가적인 요식행위와 지연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2월 8일자

더 많은 국가들이 항만국조치협정에 동의 4개국 추가, 100개국 서명...항만국은 74개국

아프리카 4개국(앙골라, 모로코, 나이지리아, 에리트레아)이 UN의 FAO 항만국조치협정(P SMA)을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총 100개국이 PSMA 관련 계약에 서명했다. 참치 자원이 풍부한 가봉, 모리셔스, 몰디브, 세이셸은 이

미 PSMA에 서명한 바 있다.

현재 EU, 에콰도르, 미국, 한국 등 전세계 항만국의 60%에 해당하는 74개 항만국이 협정에 서명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14일자



美 12월 수산물 매출, 전년 대비 감소

연휴 특수로 인해 전월 대비 증가

미국의 2022년 12월 수산물 매출은 연말 연휴 특수과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감소했다.

리서치 업체 IRI와 210 Analytics에 따르면 미국의 2022년 12월 신선 수산물 소매 매출액은 총 5억 2,200만 달러이다. 이 중 12월 첫째 주 매출액은 1억 300만 달러였으나, 성탄절이 포함된 주에는 1억 8,1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성탄절 주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5.4%, 매출량 1.8% 감소했다.

12월 냉동 수산물의 단위당 매출은 8.3% 감소하고, 신선 수산물의 단위당 매출은 5.7% 감소했다. 이를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10 Analytics의 Ann-Marie Roerink 대표는 “냉동 수산물은 12월에도 신선 수산물보다 높은 매

출을 기록하고 있다”며 “매출액은 냉동, 신선 모두 감소했으나, 냉동 수산물 매출액의 감소 폭이 신선 수산물보다 더 적다.”라고 설명했다.

12월 냉동 수산물 가격은 2.6%, 신선 수산물 가격은 1.7% 하락했다. 반면 상온보관 수산물 가격은 10.1% 증가한 1파운드당 5.62 달러를 기록했다.

Roerink 대표에 따르면 2022년을 통틀어 전체 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7.9%로, 전체 식품·음료 가격 상승률에 훨씬 못 미쳤다.

Roerink 대표는 2022년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4분기에는 매출액, 단위당 매출, 매출량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Roerink 대표는 인플레이션의 완화와 소비자들의 가정 내 식사 증가로 2023년 수산물 소매 매출 전망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3년 1월 9일자

美 11월 식물기반 냉동 대체수산물 소매 매출 감소

11월 급감했으나 꾸준히 성장 중

미국 리서치 업체 210 Analytics가 IRI의 슈퍼마켓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식물기반 냉동 대체수산물의 소매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한 8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량 기준으로 집계할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8%나 감소했다.

냉동 대체수산물의 매출은 2020년 1분기부터 꾸준히 성장했다. 2022년 분기별 냉동 대체수산

물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25%, 2분기 27%, 3분기 21% 증가했다.

대체 수산물은 식품 산업에서 점점 더 중요한 부문이 되고 있다. 2021년 1억 7,500만 달러 이상이 대체 수산물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계획인 기업에 투자되었다. 이러한 투자액은 2020년 총 투자액인 9,100만 달러 대비 92%나 증가한 수치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2월 21일자



유가 하락했으나 근시일 내 가격 상승 우려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 합의, 중국의 방역 완화

G7 국가들과 EU 등 주요 동맹국이 지난 12월 5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의 배럴당 60 달러 상한선을 지정하는 가격상한제에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세계 원유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가까운 미래에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국제 원유 가격은 지난 수개월 간 하락세이며, 선박용 연료 가격 또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5일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이날 국제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2.68 달러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12월 8일 가격은 76.73 달러로 2022년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올해 초 배럴당 120 달러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세계 2위 산유국인 러시아는 이 조치를 채택한 국가들에 석유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EU는

러시아산 석유의 주요 구매자 중 하나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EU는 2021년 러시아로부터 1일 220만 배럴에 달하는 748억 달러 규모의 원유와 정제유를 수입했다. 분석가들은 향후 수개월 안에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겨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또한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제로 정책 완화로 인해 러시아 원유의 단일국가 최대 구매시장인 중국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싱가포르 기준 선박용 경유(MGO) 병커 가격 최고점은 톤당 1,400 달러이다. 지난 9월부터 MGO 가격은 하락세로 12월 7일 Ship&Bunker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 MGO 병커 가격은 톤당 903.50 달러이며, 세계 평균 가격은 톤당 1,064 달러이다. 특히 세계 평균 가격은 지난 1~2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9일자

EU, 카메룬에 '레드카드' 부여

EU 회원국, 카메룬산 수산물 수입 불가

유럽연합(EU)이 카메룬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하려는 움직임에 비협조적인 국가로 규정하면서 '레드카드'를 부여했다.

이제 EU 회원국은 국가 당국이 인증한 어획 증명서를 첨부해도 카메룬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 없다.

EU 위원회는 2021년 2월 카메룬에 비협조적 국가로 지정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해당 통보에서 나타난 심각한 문제점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한 것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1월 9일자



노르웨이산 흰살생선, 英 수출 급증

대구 수출량 감소했으나 수출액 기록적 수준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에 따르면 2022년 냉동 대구 수출량은 8만 700톤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수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41억 크로네(약 4억 690만 달러)이다.

신선 대구 수출액은 27억 크로네로, 2021년 대비 약 14% 성장했으나, 수출량은 14% 감소한 5만 4,000톤이다.

NSC 수산물 분석가 Eivind Hestvik Baekkan에 따르면 신선 대구 수출량은 감소했고 냉동 대구 수출량은 전년과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역사적인 수준을 기록한 것은 영국 시장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원인이었다.

신선 대구 원어와 필렛 가격은 각각 kg당 46 크로네, 107 크로네에 달했다. 이전 최고가 기록인 2020년의 가격보다 각각 kg당 5 크로네, 9 크로네 높은

수준이다.

NSC 측은 영국 시장 매출 성장의 부분적 원인이 영국의 러시아 제품 수입 제재 조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식 대구 수출량은 3,800톤으로, 전년 수출량인 1,300톤 대비 급증했다. 양식 대구 수출액은 총 대구 수출액에서 7%를 차지했다.

냉동 대구 최대 시장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중국, 영국, 미국 순이었다. 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5억 9,400만 크로네로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냉동 대구 원어 수출액은 역대 최고가 수준인 kg당 48 크로네로, 이전 기록인 2019년의 kg당 11 크로네와 비교해도 대폭 상승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1월 5일자

FISH 표준, SSCI 인정 절차 신청

국제 제3자 감사, 모니터링, 표준 관련 가이드라인

어선의 노동 관행에 대한 제3자 인증인 FISH 표준이 지속가능한 공급망 이니셔티브(SSCI)의 정식 인정 절차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SSCI를 운영하는 단체인 소비재포럼(CGF)은 소비재 생산을 위한 관행 및 표준을 장려하는 국제 산업 네트워크로, 70개국 이상 400개 이상의 소매업체, 생산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었다. SSCI는 제3자 감사, 모니터링 및 인증 체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지속가

능성 요구사항 및 관련 검증 관행을 다룬다.

SSCI 벤치마크에는 노동 관련 핵심 요소인 건강 및 안전, 근무 시간, 임금, 수당 및 윤리적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기준은 제3자 감사, 모니터링, 인증 체계 검증에 대한 업계의 기대치를 종합한 것으로, CGF 구성원, 외부 이해관계자, 정부 기관 및 NGO에 의해 개발되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1월 4일자



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도 경제 반등 빨라

2023년 수산업계 정상화 기대

11월 말 전국적인 시위 이후, 중국 정부는 12월 7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제한 완화를 시작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대규모 검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대규모 봉쇄·격리·강제입원 시행 등을 철회했다.

다수의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이 현재 과도기를 겪고 있으나 2023년부터 대규모의 시장 재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콩과 중국 본토에 사무소를 둔 신선식품·수산물 기업 WhatFresh의 Jack Yuan 상무는 2월 말에서 3월에 외국인들이 이전처럼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Yuan 상무는 또한 중국 경제가 더 빠른 추세로 재반등할 것이며, 수산물 시장은 2023년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하이에 위치한 수산물 마케팅 에이전시 SMH International의 Robin Wang 대표는 대중교통, 슈퍼마켓, 도매시장, 사무실 건물 등에서 검사 축소 및 이동 제한이 해제되며 접근이 더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전역 개방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나 홍콩과 광저우 등 해제가 빠른 남부 지역을 따라 다른 지역들도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Wang 대표는 수입 육류 및 수산물의 중국 항구 반입 시 코로나 검사를 중단하는 것이 완화의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으며, 2023년에 수산물 무역이 다시 회복되고 소비가 증대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2월 19일자

中, 냉장·냉동식품 수입 시 코로나19 검사 폐지

세관 "이번 주 초부터 중국 항구서 냉장·냉동 화물 검사 중단"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시장규제국은 1월 8일 부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냉장·냉동식품을 검사하고 소독하는 엄격한 절차를 철회할 방침이다. 중국 세관원들 또한 이번 주 초 중국 항구에 도착하는 냉장·냉동 화물에 대한 검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설팅 기업 Beijing Means의 설립자 Huang Juhui는 "검사 및 소독 요구사항 철회는 추가 비용을 감소시키고 제품 이동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무역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2월 30일자



2022년 글로벌 소비 트렌드 짚어보기

소비자 8가지 유형으로 구분, 성향 분석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소비자들의 구매 동기, 소비습관,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8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① ‘안정적인 전통주의자’는 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며, SNS 마케팅이나 최신 트렌드를 좇지 않는 소비자 유형이다. 제품 정보를 사전에 거의 찾아보지 않고(74%), 온라인 가격비교도 잘하지 않으며(73%) SNS나 셀럽 마케팅 보다는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의연한 노력가’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며 SNS 등을 통해 브랜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실질적인 제품보다 경험을 소비하는 것을 더 중시하고(86%),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며(86%), 브랜드 또는 기업 웹사이트 마케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균형잡힌 낙천주의자’는 현재의 안정적인 생활과 미래에 대한 계획 모두 중시하는 유형으로 전 세계 14%를 차지하고 있다.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자 하며 간단하고 편리한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균형잡힌 낙천주의자는 가족 및 지인의 추천, 소비자 리뷰, 제품 라벨 및 패키징 등에 구매 영향을 받으며, 할인을 선호하는 동시에 고품질 제품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전 세계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권한을 가진 활동가’는 사회적·환경적·정치적 정의를 추구하는 유형으로 해당 유형의 40%는 SNS에 사회적 및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전 제품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며(78%), 온라인 제품 리뷰를 정기적으로 찾아보고(70%) 온라인 가격 비교에도 적극적인(71%)이다.

⑤ ‘신중한 계획자’는 전 세계 13%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저축을 중시하며, 구매 전에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고 계획에서 벗어난 소비는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중 85%는 제품 라벨을 신뢰하며, 80%는 충동구매를 자주 하지 않고, 90%는 다음해를 위해 저축하는 금액을 유지하거나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⑥ ‘충동 구매자’는 전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신 유행 및 SNS 마케팅에 민감하고 물질보다 경험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중 85%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48%는 할인 제품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⑦ 세계 인구의 9%를 차지하는 ‘미니멀리스트 추구자’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으며, 구매 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들은 할인 제품을 선호하고(60%), 합리적인 수준에서 혁신적인 제품이나 새로운 브랜드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비자 유형을 타겟팅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지속가능성, 현지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재료 등을 제품 포장 또는 라벨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나타났다.

⑧ 마지막으로 ‘보수적인 방콕족’은 세계 인구의 6%를 차지하며, 최신 유행을 따르기보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이들 유형은 구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아이쇼핑하는 것을 즐기며, 고급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유형은 팝업 세일, 한정판 제품 등 독특하고 이목을 끄는 마케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日 교쿠요, 유럽·미국에 신규 생산기지 설립

해외 생산 거점 확보 후 글로벌 매출 확대 전략 추진

일본 수산 대기업 교쿠요(極洋)의 이노우에 마코토(井上誠) 사장은 14일 본사에서 연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노우에 사장은 식품 사업과 함께 주력 중인 해외 사업 확장에 대해 “해외에 생산 거점을 확보해 글로벌 매출을 확대시키는 전략으로 전환할 것”이며, 해외 주요 공장이 될 태국 자회사에 더해, 유럽과 미국에 새로운 생산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노우에 사장에 따르면 교쿠요는 매출·영업이익·경상이익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산업, 가다랑어·참치 사업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꾸준했으며, 그 결과 중기 경영계획 2차(2021~2023년도) 상반기에 영업이익 목표 80%, 경상이익 목표 90%를 달성했다.

이노우에 사장에 따르면 교쿠요의 해외 사업 부문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1.3배 증가한 107억 엔을

기록했다. 이노우에 사장은 또한 앞으로 제품을 해외에서 제조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두어 글로벌 매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완공된 태국의 교쿠요 글로벌 시푸드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유럽, 미국 등에 공급하는 해외 핵심 공장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7월 설립된 베트남 자회사의 공장은 2년 후 완공 예정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가시화된 중국 가공의 리스크 분산 및 베트남과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생산·판매가 주목적이다.

이노우에 사장은 차후 미국이나 유럽에도 생산 거점 확보를 원하기 때문에 현지 기업과의 협력·인수 합병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12월 15일자

그린란드, 2023년 어업협정 체결

노르웨이·페로제도와 체결했으나 러시아와 미체결

그린란드가 노르웨이, 페로제도와 2023년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러시아와는 어업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린란드-러시아는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양국간 쿼터 교환이 없는 한 해를 맞게 되었다.

그린란드와 노르웨이는 2022년 프로토콜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를 통해 그린란드는 바렌

츠해에서 대구 4,000톤, 해덕대구 750톤, 청대구(saithe) 650톤의 쿼터를 확보했다.

그린란드와 페로제도의 2023년 어업협정에서, 그린란드는 2022년 쿼터 대비 4,150톤 증가한 1만 8,850톤의 청대구 쿼터를 확보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2년 12월 22일자



타이유니온, 2023년 1억 7,200만 달러 재투자

공장 신설 등 사업 확장 목적...콜라겐 등 투자

타이유니온이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글로벌 이슈에도 불구하고 2023년 60억 바트(약 1억 7,240만 달러)를 투자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10억 바트(약 2,870만 달러)는 Samut Sakhon에 단백수해물(protein hydrolysate)과 콜라겐펩타이드(collagen peptide)를 생산하는 신규 공장 2개를 완공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투자될 예정이다. 타이유니온은 또한 2021년 중반에 시작되어 2023년 완료 예정인 가나의 참치 냉동시설 및 폐수 처리공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50억 바트(1억 4,360만 달러)는 회사의 기존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Chansiri 회장은 2022년 목표 매출액을 5% 상향된 1,560억 바트(약 44억 8,000만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8일, 타이유니온은 2015년 설립된 영국 의료생명공학 기업 Jellagen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Jellagen에 대한 투자는 타이유니온이 대체 단백질 개발, 기능성 영양, 바이오테크놀로지, 그 외 신기술 투자를 위해 2019년 설립된 타이유니온 기업벤처패키탈을 통해 이루어졌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2월 9일자

타이유니온,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 평가 1위

지배구조&경제 97%, 사회·환경 100%

타이유니온이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식품 산업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12월 13일 발표했다.

타이유니온은 수천 개 상장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평가하는 지수인 DJSI에 9년 연속 참가해왔다. 올해 타이유니온은 DJSI의 식품 산업 부문 순위에서 2018년, 2019년에 이어 다시 1위를 기록했다.

타이유니온은 지배구조&경제 측면에서 백분위 기준 97%를 기록했다. 이들은 또한 사회·환경 측면 및 18개의 타 부문에서 100%를 기록했다.

타이유니온은 2021년 UN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2회 연속 수

산물관리지수(SSI) 1위에 선정되었다.

타이유니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년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 전략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활동에는 태국 Samut Sakhon에 위치한 공장에 7MW 규모의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한 것과, 세이셀에 위치한 수산물 처리 공장의 태양열 패널 면적을 30%로 증대시킨 것, 공급망 투명성 상을 위해 지속가능수산파트너십(SFP)과 협력을 개시한 것, 고용자 부담 원칙하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용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2월 14일자



인도네시아, 中 대체 흰살생선 가공허브로 부상

인도네시아-베트남 가공산업 성장 잠재력 주목

아직까지 비교적 작은 수준이지만, 11월 노르웨이산 냉동 대구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의 흰살생선 가공산업 부상에 대한 추측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의 수산물 수석 분석가 Finn-Arne Egeness는 인도네시아의 성장이 아주 흥미로우며, 통계에 따르면 냉동 대구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1,410%, 해덕대구 수출은 11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geness는 이러한 수출 증대가 미국 또는 유럽으로 재수출하는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산업 성장 때문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Egeness는 인도네시아행 흰살생선 수출 증대가

기존 부가가치 시장인 중국(코로나19 봉쇄 조치)과 동유럽(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생산 능력 부족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중국은 앞으로도 기존의 위치를 유지하겠지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앞으로 더 많은 노르웨이산 흰살생선을 가공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흰살생선 대기업 Espersen은 2010년 베트남에 자체 가공 시설을 건설했다. 또한 노르웨이 식품당국(Mattilsynet)은 지난 10월 인도네시아와 협약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행 수산물 수출이 용이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2월 13일자

日, 2016~2022년 냉동 고등어 수입 통계

日 2022년 10월 말 냉동 고등어 수입량 3만 4,005톤

영국의 EU 탈퇴 이후, 북대서양의 북유럽 고등어는 이미 어기 2시즌을 지났지만 고등어 쿼터를 둘러싼 협의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

일본이 주로 수입하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어획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어기를 앞당긴 결과 품질은 저하됐고, 여기에 아프리카 국가 등 일

본의 수입 경쟁국으로 인해 이전 대비 수매 가격이 급등했다.

연내에 일본에 도착하여 일본 내에서 판매된 고등어 가격은 kg당 300 엔대 후반에서 400 엔에 이르는 등 이전보다 한층 상승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1월 1일자

부문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0월 말
노르웨이	67,239	56,264	59,457	57,208	45,751	66,480	23,731
기타	6,754	6,924	8,230	8,658	6,763	7,052	10,274
합계(톤)	73,993	63,188	68,880	65,866	52,514	73,532	34,005
단가(노르)	209엔	212엔	236엔	259엔	245엔	224엔	295엔



희망하는 기쁨

홍 수 희

침묵하는
겨울 산에
새 해가 떠오르는 건

차디찬
바다 위에
새 해가 떠오르는 건

하필이면
더 이상은 꽃이 피지 않을 때
흰 눈 나폴거리리는 동토凍土에

이글이글
새 해가 떠오르는 건
가장 어두운 좌절 깊숙이
희망을 심으라는 것

지금 선 그 자리에서
숨어있는 평화를 찾으라는 것

희망하는 기쁨,
새해 첫날이 주는 선물입니다





12월 오징어 국내 동향

연근해 생산 및 원양산 반입 증가, 소비자가격은 강보합세

□ 생산동향(12월 오징어 생산량, 전월 대비 72% 증가)

12월 오징어 생산량은 2,960톤으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53.4%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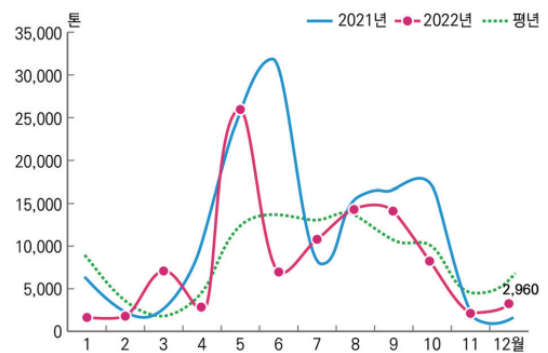
연근해 생산량은 1,803톤으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이는 겨울철 산란을 위한 오징어 어군의 남하회유로 강원 및 경북 연근해 오징어 어군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2월 연근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서도 19.3% 많았지만 평년 보다는 65.7% 적었다.

지역별 위판량을 살펴보면, 포항수협(279톤), 죽변수협(267톤), 삼척수협(141톤) 등 동해안 지역 위판량이 1,655

톤으로 93.1%, 부산시수협(53톤), 통영수협(51톤) 등 남해안 지역 위판량은 115톤으로 6.4%를 차지하였다.

12월 원양산 오징어 반입량은 1,157톤으로 전월보다 큰 폭으로 늘었으며 전년 및 평년 동월보다 많았다.

한편, 2022년 오징어 생산량은 8만 6,288톤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2.7%, 15.0% 적었는데, 연근해 산 및 원양산 모두 전년에 비해 생산이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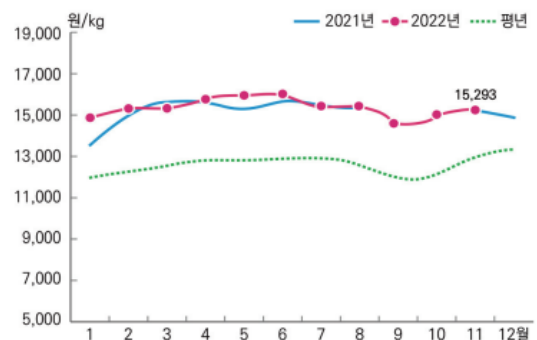
□ 가격동향(12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강보합세)

12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5,154원으로 전월 대비 21.7% 하락했으나, 소비자가격은 kg당 24,063원으로 전월 대비 6.4% 상승했다.

냉동품 가격은 최근 생산 부진 지속으로 재고량이 감소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2.7% 상승한 kg당 10,210원이었으며, 소비자가격은 kg당 15,467원으로 전월 대비 강보합세를 보였다.

정부비축물량의 상시 방출로 소비자가격 상승폭은 도매가격 상승폭에 비해 작았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 추이〉



주 : 2022년 11월은 잠정치임
자료 : aT KAM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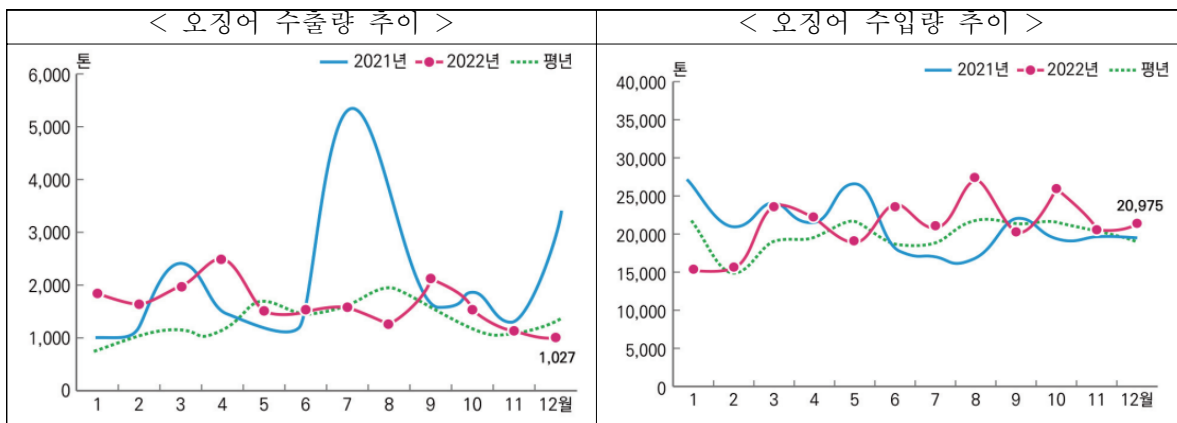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12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4% 증가)

12월 오징어 수출량은 1,027톤으로 전월 대비 9.3% 감소했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가 643톤, 기타 제품은 384톤이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398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페인(168톤), 베트남(110톤) 등의 순이었다.

12월 오징어 수입량은 전월 대비 4.1% 증가한 2만 975톤이었다. 국가별로는 페루산과 중국산이 각각 9,509톤, 9,037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칠레산(809톤) 및 아르헨티나산(438톤) 등이 수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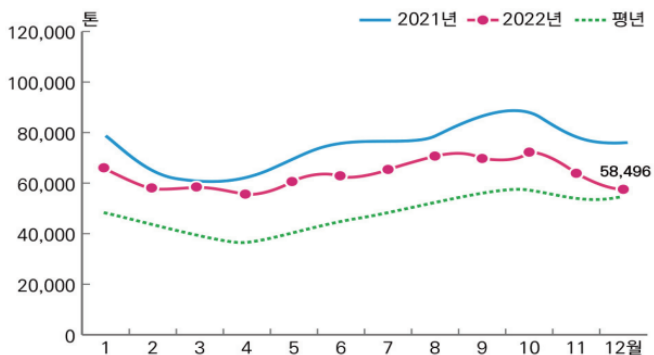
2022년 오징어 수입량은 25만 3,136톤으로 전년과 비슷했고 평년보다는 6.0% 많았다.



□ 재고동향(12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5% 감소한 5만 8,496톤)

12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은 전월 대비 4.7% 감소한 5만 8,496톤이었다.

2023년 1월에도 연근해 생산 및 원양 반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오징어 재고량은 12월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 출처: KMI 수산물측 1월호



12월 명태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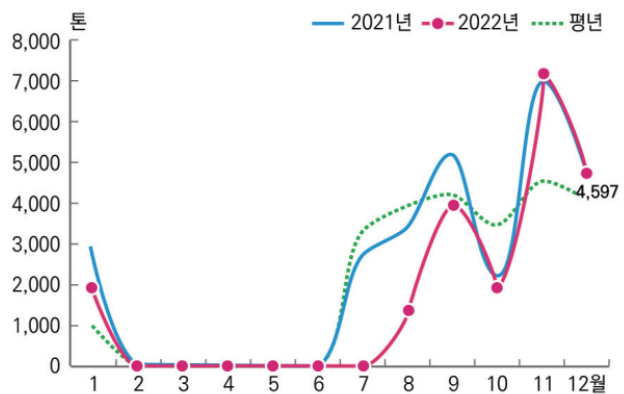
원양명태 반입량 전월 대비 감소, 소비자가격은 상승

□ 생산동향(12월 명태 반입량, 전월 대비 37% 감소한 4,597톤)

12월 원양명태 반입량은 전월에 비해 36.7% 감소한 4,597톤이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3.7% 적었으나, 평년 대비 12.1% 많았다.

12월까지 누적 반입량은 2만 821톤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26.5%, 15.4% 적었다. 이는 '러우 사태' 여파로 조업 시작이 늦어져 2022년산 원양명태 누적 어획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 원양명태 어획량은 전년(27,779톤)보다 22.1% 적은 2만 1,630톤이었다. 2022년 원양명태 쿼터 소진율은 75.9%로 전년(97.8%)에 비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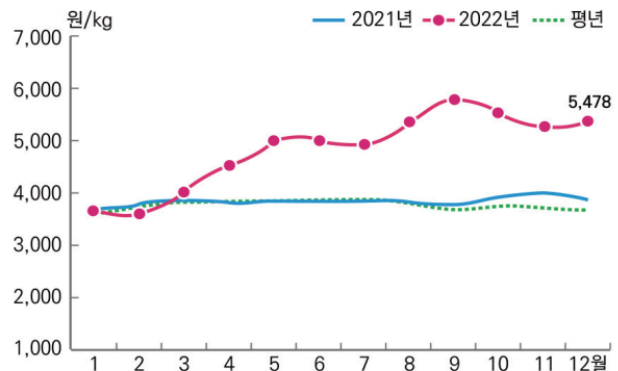
주 : 2022년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해양수산부

□ 가격동향(12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2% 상승한 kg당 5,478원)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5,478원으로, 12월 중순부터 일부 대형소매점에서 할인행사가 종료되어 전월 대비 1.8% 상승했다.

한편, 12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502원으로, 7월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전월 대비 2.0% 상승했다.



주 : 2022년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aT KAM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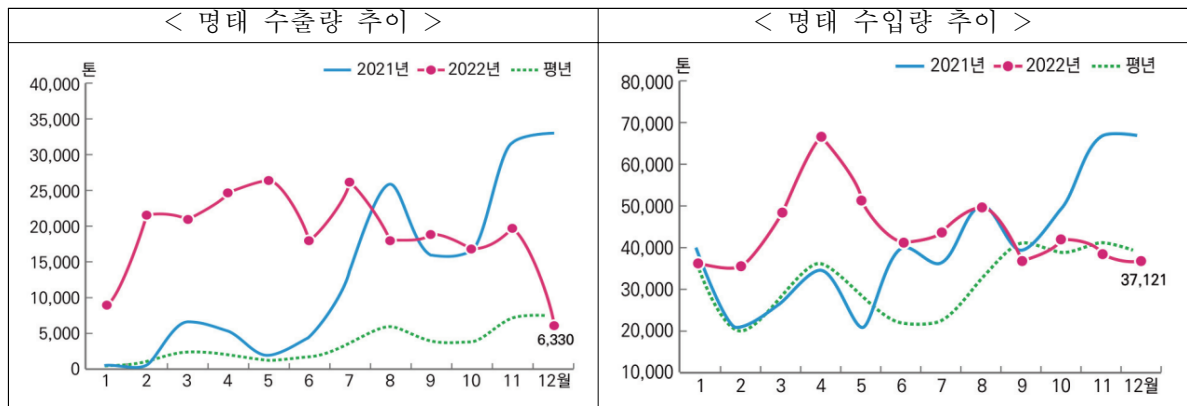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12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4% 감소한 3만 7,121톤)

12월 명태 수출량은 6,330톤으로 전월(19,612톤) 대비 67.7% 감소했다. 전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80.9%, 16.8% 적었다. 이 중 중국으로 수출량이 5,224톤으로 전월(19,069톤)보다 크게 줄었으며, 다른 국가로의 수출은 미미했다.

명태 수입량은 전월(38,566톤)보다 3.7% 감소한 3만 7,121톤이었다. 전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44.5%, 10.3% 적었다. 러시아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 1만 8,762톤, 러시아산 냉동필렛 7,165톤, 미국산 냉동연육 6,537톤 등의 순이었다.

2022년 명태 수입량은 52만 7,375톤으로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7.4%, 31.7%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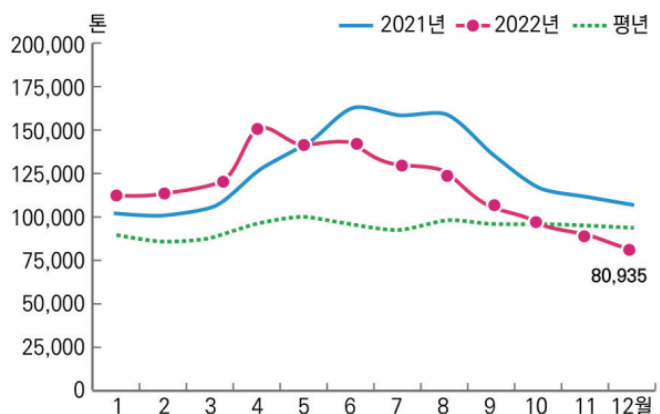


□ 재고동향(12월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12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전월(88,586톤)보다 8.6% 감소한 8만 935톤이었다.

전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23.8%, 13.0% 적었다.

이는 공급량인 반입 및 수입량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재고로 집계되던 對중국 재수출 물량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 자료 출처: KMI 수산물측 1월호



조승환 해수부 장관, 새해 첫 해양수산 현장 방문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 동행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월 6일 새해 첫 해양수산 현장방문으로 부산지역을 찾아 해양수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도 동행했다.

먼저, 조 장관은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해 최근 어획이 부진한 고등어를 중심으로 수산물 물가를 살피고 현대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공동어시장의 위판량이 많이 줄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산물 유통 1번지라는 명성을 유지하도록 현대화사업의 적기 착공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히고, “지난해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수산인들께서 저력을 발휘해 수출 31.6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였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조 장관은 수산업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장소를 옮겨, 조 장관은 순직 선원 9,314분의 위패

가 봉안된 ‘순직선원 위령탑’을 참배하고 어려운 해상근로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순직하신 선원분들의 명복을 빌었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지난 12월에 준공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조성된 부지와 공원, 도로, 공중보행교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이 15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현장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고, “1단계 사업지역은 올해 4월 국제박람회 기구(BIE) 현장실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사단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위해 준비된 후보도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조 장관은 부산지역 해운항만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2023년도 해수부 예산 6조 4,333억원 확정

2022년도 본 예산보다 0.8% 증액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3,814억 원보다 518억 원 증액된 6조 4,333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6조 3,849억 원보다 0.8%(483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부문이 2조9,474억원으로 4.1%가 증가했고, 해운·항만부문은 1조8,852억원으로 전년대비 7.1%가 줄었다. 해양·환경부문에는 전년보다 5.3%가 늘어난 1조3,779억원이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8,237억원 대비 7.1% 증가한 8,824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섬 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별 연구 및 생산기반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다.

〈섬 주민 106억 증액 지원〉

해양영토 수호 등 공익적 기능 수행에 비해 취약한 섬 거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물류 등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예산이 106억원 증액됐다.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일반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지정하고, 국고여객선을 건조하기 위한 예산 등이 41억원 증액됐다.

청년어업인 육성과 수산업경영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조건이 대폭 개선됐다. 금리를 기존 2%에서 1.5% 또는 변동금리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3년거치 7년상환에서 5년거치 20년상환으로 늘리는 한편,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산물 구매시 활용이 가능한 수산물 상생할인 쿠폰 지원규모도 30억원으로 확대됐다.

〈해양바이오·양식 육성〉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해양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연구개발센터' 조성비로 설계비 3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해양바이오 소재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평가를 지원하는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비(설계비) 3억5,000만원과 동해안 심해연구를 위한 심해과학연구센터 건립비(설계비) 4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신규 어촌인력 유입을 위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을 위한 예산 10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전복, 멍게 등 양식수산물 지역별 생산·유통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 38억원, 생산비중이 높은 양식수산물을 미래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용역비 9억원도 편성됐다.

또한 수산기자재와 어선건조산업의 집적화·고도화를 위해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설계비 2억원과 어선 건조지원센터 설계비 5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해양수산분야 안전 강화〉

주요 연안육상구역의 매입·정리를 통해 친환경 재해완충지를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조성' 실행방안 수립용역 및 시범사업 2개소 추진비로 12억원이 증액됐으며, 해양레저안전체험관 조성비 설계비 7억 5,000만원과 어업지도선에 대한 안전시설보강 예산 5억5,000만원도 신규 반영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비해 북서태평양 해역 모니터링 조사비(R&D) 10억원과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비 6억원도 새롭게 반영됐고 연근해 수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 예산도 확대됐다.



2022년 농수산물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경신 수산물식품 31.6억불로 전년 대비 11.8%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잠정)이 2년 연속 100억 불을 돌파했으며, 전년보다 5.3% 증가해 약 120억 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산물식품 수출액은 31.6억 불로 11.8% 증가했으며 농식품 수출액은 88.3억불로 3.2% 증가했다.

수산물식품은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핵심 품목인 김(655.7백만불, 5.4%↓), 참치(602.5백만불, 4.0%↑)가 수출을 이끌고 이빨고기(90.8백만불, 101.1%↑), 전복(65.2백만불, 19.8%↑) 등 주요 품목들이 뒷받침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김은 '19년부터 수산물식품 수출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으며, 마른김을 비롯해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인 조미김·스낵(간식)김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22년은 김 단일 품

목으로 수출 1억 불을 달성한 기업이 탄생하는 등 김 산업 발전에 있어 의미 있는 한해가 되었다.

참치는 인도네시아 통조림 가공산업 활성화에 따른 고품질의 한국산 가다랑어 수요 증가 등 동남아시아 시장 성장에 힘입어 수출이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이빨고기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남극해에서 직접 잡은 심해어로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한 고가의 식자재(스테이크용)로 인식되는 어종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 대상국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량과 가격이 모두 상승하며 수출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전복은 건강식품이라는 인식 확산과 외식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일본, 베트남으로의 활전복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전복 수출액 증가를 이끌으며, 굴은 태국 시장에서 두 배 가까운 큰 성장을 기록했다.

내년 선원 최저임금 5.27% 인상 월 2,487,640원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27%(124,540원) 인상한 월 2,487,64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0,580원보다 477,06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5%인 반면에 해상근로자는 5.27%를 적용한 금액이다.

선원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여러차례 선원복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원 최저임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하여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선원최저임금보다 5.27% 인상하는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확정하였다.



설 차례상, 수산물 할인행사로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1월 2일(월)부터 24일 간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 개최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2일 (오프라인은 5일)부터 25일(온라인은 22일)까지 24일 동안 '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 최대 60% 할인을 지원받는다.

할인 대상은 국민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포장회(광어·우럭) 등 8종과 전복, 마른 김, 참돔 등 제수용품, 참여업체별 최대 5개 품목 등 16종이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롯데마트,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10개 오프라인 업체와 우체국쇼핑,마켓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26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

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4만 원 한도로 2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상품권은 1월 3일, 10일, 17일 총 3회에 나누어 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39개 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도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진행한다.

공적자금 굴레벗은 수협, 새출발 다짐 수협은행 중심 금융지주체제 전환

수협중앙회는 지난 11월 23일 중앙회 2층 강당에서 공적자금 조기상환 기념식을 열고 '수협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이 비전에는 △금융사업 지배구조 개편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확대 △중앙회 사업 경쟁력 강화의 세 가지 중점 추진사항이 담겼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중앙회는 먼저, 어업인을 비롯해 전국 91곳의 수협조합 지원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투입자본 대비 성

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자산운용사 등 소형 비은행 금융회사를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는 그간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했던 은행 배당금 등을 토대로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규모를 연간 2,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밖에도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부산공동어시장의 지분인수를 추진하고,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구축·저가형 활어전문점 등 수산물 전문 프랜차이즈 사업도 추진한다.

* 기사 출처: 어민신문



과메기·김, 1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

과메기 필수 아미노산 풍부

해양수산부는 계묘(癸卯)년 시작인 1월을 맞아 이달의 수산물로 김과 과메기를 선정했다.

과메기는 추운 겨울철 쫄면이나 청어를 차가운 바닷바람으로 건조시켜 만드는데 수분이 날아가고 기름기는 배어나와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류신, 라이신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과 함황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일반적으로 과메기는 미역, 김과 함께 찜을 써서 주로 먹지만, 과메기를 처음 먹는 사람들은 과메기에 양파, 애호박, 당근, 쪽파를 잘게 다지고 노릇하게 구워 만드는 과메기 전을 추천한다.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좋은 김은 우리 국민뿐만 아

니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수산물로 특히 우리나라 김은 '21년 기준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차지할 만큼 수출 효과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은 단백질이 가장 풍부한 해조류로 알려져 있는데, 마른김 5장은 달걀 1개와 비슷한 단백질을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칼슘, 인, 철과 같은 무기질이 풍부해 '바다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고 불린다. 김은 주로 굵거나 조미를 해서 먹지만 두부에 김을 붙인 후 그 위에 양념을 입혀 바삭하게 구워낸 김두부조림도 겨울철 별미다.

해양경찰청장에 김종욱 제청

해경 순경 출신 첫 청장

해양수산부는 김종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감)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청장은 경남 거제 출신이며 1989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치안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조직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33년의 공직 생활 중 일선의 함정·안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으며, 본청 수사과장,

인사담당관, 경비과장, 감사담당관을 거쳐 동해해경청장(경무관), 장비기술국장(경무관), 수사국장(치안감) 등을 역임했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우수한 업무역량을 갖춘 신임 해경청장을 임명 제청하였으며, 성과위주의 조직운영을 통한 쇄신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바다를 만들어 나갈 책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상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검직)
		공길웅 과장	589-1605	총무, 자금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 협력
		조성환 과장	589-1606	서무관리, 차량운영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기획홍보부	이형균 이사	589-1607	총괄(검직)		정운경 사원	589-1615	참치연승	
		김영수 과장	589-1608	기획, 홍보		해외협력 2부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김민재 사원	589-1609	원양뉴스, 생산통계			최상진 사원	589-1617	오징어, 기타트롤
	조성주 과장	589-1620	원양산업발전 TF팀 간사	이승환 사원	589-1618		북양, 쾡치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부산지부	-	이성재 이사	(051)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김현애 과장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최동환 주임	589-1619	노사, 선원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051
						최광준 팀장	253-3391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기구
	국제협상지원팀	권준양 행정관	044-868-7837	OFIS, 해외수산물투자, 행정	해외진출지원팀	-	044-868-7836	ODA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물기구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0343-4742525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extra.co.nz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53호

발행처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발행 : 2023년 1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윤명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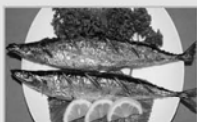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제격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